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현 숙

2019년 8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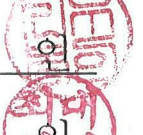

지도교수 최 대 희

김 현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김현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 정	
위 원	신 우 봉	
위 원	최 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A Study on NP embedded sentence in
Daehanmaeilsinbo

Kim, Hyeon-Sook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 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oi, Dae Hee,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연구

김 현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연구는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의 형태 및 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매일신보>가 20세기 초기 문헌이라는 점에서 이전 국어 및 현대국어와의 비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명사구 내포문의 공시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통시적인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제약을 살펴보았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은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문장성분으로서 기능한다. 이때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서 결합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였다. 이 장에서는 명사화 구성의 기능뿐만 아니라 명사화 구성의 제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명사화 어미와 관련이 있으며 그 제약으로는 상위문장의 서술어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과의 결합 제약이 있다.

둘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제약을 살펴보았다. 관형화 구성은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 ‘-ㄴ’ 관형화 구성과 ‘-르’ 관형화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도 관형화 구성의 유형뿐만 아니라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관형화 어미와 관련이 있으며 그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이 있다.

셋째, 명사구 내포문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명사화 구성의 경우 15세기에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독보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기’ 명사화 구성은 드물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점차 ‘-기’ 명사화 구성이 활성화 되고, ‘-(으)ㄴ’ 명사화 구성이 축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에는 ‘-기’ 명사화 구성이 ‘-(으)ㄴ’ 명사화 구성보다 많은 분포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16세기까지 볼 수 없었던 ‘-ㄴ/ㄷ 것’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는 ‘-기’ 명사화 구성과 ‘-ㄴ/ㄷ 것’ 구조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 매일신보>에서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화 구성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체·대상법의 소멸이다. 16세기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주체·대상법 역시 소멸하기 시작하고 17세기 이후로는 주체·대상법이 거의 소멸되었다. 17세기 이후의 관형화 구성은 점차 현대국어의 관형화 구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20세기 초기 명사구 내포문, 명사화 구성, 관형화 구성, 기능, 제약, 유형, ‘-(으)ㄴ’ 명사화 구성의 축소, ‘-기’ 명사화 구성의 활성화, 주체·대상법의 소멸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2
3. 연구 대상 및 방법	5
II. 명사구 내포문 구성 이론	9
1. 명사화 구성	10
2. 관형화 구성	18
III.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	27
1. ‘-(으)ㄴ’ 명사화 구성	27
1) ‘-(으)ㄴ’ 명사화 구성의 기능	27
2) ‘-(으)ㄴ’ 명사화 구성의 제약	32
2. ‘-기’ 명사화 구성	35
1) ‘-기’ 명사화 구성의 기능	36
2) ‘-기’ 명사화 구성의 제약	42
3.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	45
IV.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	52
1. ‘-ㄴ’ 관형화 구성	52
1) 자립명사 구문	52
(1) ‘-ㄴ’ 관계화 구성	53
(2) ‘-ㄴ’ 보문화 구성	55
2) 의존명사 구문	56
(1) ‘-ㄴ’ 관계화 구성	56
(2) ‘-ㄴ’ 보문화 구성	58
3) ‘-ㄴ’ 관형화 구성의 제약	59

2. ‘-르’ 관형화 구성	63
1) 자립명사 구문	63
(1) ‘-르’ 관계화 구성	64
(2) ‘-르’ 보문화 구성	66
2) 의존명사 구문	67
(1) ‘-르’ 관계화 구성	67
(2) ‘-르’ 보문화 구성	68
3) ‘-르’ 관형화 구성의 제약	70
3.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	73
IV. 결 론	78
<참고문헌>	82
<Abstract>	87

<표> 목 차

<표 1> 명사화 어미의 분포 양상	48
<표 2> 명사화 어미의 문장성분별 분포 양상	49

<그림> 목 차

[그림 1] 문장의 유형	10
---------------------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시적 연구지만 <대한매일신보>가 20세기 초기 문헌이라는 점에서 이전 국어 및 현대국어와의 비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통시적으로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양상까지 본문에서 확인해 볼 것이다.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명사구의 기능이라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대치되어 쓰이지 않으며, 시대별로 나타나는 분포가 다르다는 점에서 꾸준한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관형화 구성은 변형생성문법 도입 이후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뉘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의 형태 및 통사적 특성과 의미 특성을 밝히는 것은 공시적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고, 명사화 어미의 분포 및 변화 양상을 다루는 것이 통시적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다. 관형화 구성의 연구는 관형화 구성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관형화 구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법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연구 내용이었다.

그러나 명사화 구성의 연구는 대부분 18세기 이전 국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였고, 통시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명사화 어미의 흐름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관형화 구성의 연구는 그 유형과 여러 문법 현상을 공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기에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초기 대상으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대한 연구가 드물었다. 20세기 초기는 흔히 개화기라 부르며, 이 시기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언어 현상들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현상들을 설명하고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시기의 국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20세기 초는 국어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20세기 초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기 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형태 및 통사적 특징을 파악하는 공시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이전 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의 변화 양상까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명사구 내포문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할 때 명사구를 통해 간접 관할하는 구성으로 어미가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내포문 구성에 관여하는 어미를 내포문 어미라 한다. 따라서 명사구 내포문에 관한 연구는 내포문 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명사구 내포문은 다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으로 나뉘는데, 명사화 구성을 이룰 때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는 ‘-(으)ㄴ’과 ‘-기’가 있고, 관형화 구성을 이룰 때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는 ‘-ㄴ’¹⁾과 ‘-ㄴ’이 있다.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를 명사화 어미,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를 관형화 어미라 한다.

명사화 어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명사화 어미의 형태 및 통사적 특징과 의미 특징을 다룬 연구와 명사화 어미의 분포와 변화 양상을 다룬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전자의 연구에는 권재일(1982), 홍종선(1983), 서은아(1997) 등이 있고, 후자에는 채완(1979), 홍종선(1983), 서은아(2001), 양정호(2005) 등이 있다.

권재일(1982), 홍종선(1983), 서은아(1997) 등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에

1) ‘-ㄴ’계 관형화 어미에는 ‘-은’, ‘-는’이 있다.

대한 공시적 연구로 명사화 어미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 특징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권재일(1982)은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명사화 어미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다. 명사화 어미에 따라 결합하는 서술어가 결정된다는 전제로 상위문장의 서술어와 명사화 어미의 결합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명사화 어미 ‘-음’은 자동사, 지각 동사와 결합하고, ‘-기’는 가능성을 뜻하는 동사나 관형적 표현과 결합한다고 보았다.

홍중선(1983)은 명사화 어미 ‘-음’과 ‘-기’가 지닌 의미 특성을 논의하였다. 명사화 어미 ‘-음’과 ‘-기’가 가진 의미 특성은 역사성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명사화 어미에 대한 의미 분석은 명사화 어미가 지닌 고유한 의미가 문장의 구성을 다르게 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다.

서은아(1997)는 명사화 어미의 형태·통사적 기능과 의미 특징을 모두 다룬 연구이다. 형태·통사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명사화 어미의 높임법 제약, 서술어 제약 등 문법 특성과 대치현상을 살피고, 의미와 관련해서는 명사화 어미의 의미를 역사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음’은 ‘현재에 일어난 것’과 ‘일이 일어난 그 당시’의 뜻을 지닌다고 하였고, ‘-기’는 ‘행동’의 뜻을 지닌다고 논의하였다.

명사화 어미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채완(1979), 홍중선(1983), 서은아(2001), 양정호(2005) 등이 있다. 명사화 어미의 통시적 연구는 명사화 어미의 분포 및 빈도수를 파악하고 명사화 어미의 변화 양상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사화 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대부분은 명사화 어미 ‘-기’가 15세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쓰임이 다르고 제한적이었으나 16세기에 들어서 명사화 어미 ‘-기’가 등장하는 빈도수는 점차 증가하더니 17세기 이후부터는 그 쓰임의 빈도가 급증하였지만, 그에 비해 명사화 어미 ‘-음’의 쓰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개화기 국어는 줄곧 연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개화기 국어에 대한 연구는 더뎠다. 그러나 개화기가 근대와 현대의 중간 지점으로서 두 시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화기 국어는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개화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어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성희(1994), 권재일(1995), 호정은(1999) 등이 있다.

전성희(1994)는 개화기의 신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명사화 어미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시적 측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통시적 측면에서도 논의하였다. 명사화 구성과 격조사의 결합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기’ 명사화 구성이 ‘-음’ 명사화 구성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명사화 어미의 특성을 ‘-음’은 명사적이고 문어적이며, ‘-기’는 동사적이고 구어적이라고 정리하였다.

권재일(1995)에서는 20세기 초기의 명사화 구문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법 현상 및 변화를 논의하고, 20세기 초기 국어의 명사화 어미가 가지는 통사적 기능과 서술어와의 결합 제약 등을 파악하였다.

호정은(1999)는 개화기 자료인 독립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명사형 어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명사화 어미 ‘-기’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로 주로 동사가 나타났으며 명사화 어미 ‘-음’보다도 사용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전성희(1994)와 호정은(1999)의 논의는 명사화 어미의 공시적 연구뿐만 아니라 통시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형화 구성에 대한 연구는 관형화 구성의 구조 및 여러 가지 문법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 관형화 구성과 관련한 연구에는 우형식(1987), 허원욱(1991, 1995, 1997, 2005, 2014, 2017)등이 있다.

우형식(1987)은 국어의 관형화 구성을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누고 그 사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파악한 연구로 국어 관형질의 체계를 파악하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허원욱(1991, 1995, 1997, 2005, 2014, 2017)은 15세기의 매김마디²⁾부터 현대국어의 매김마디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적 측면으로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각 시기의 매김마디 특징 비교를 통해 매김마디의 변화 양상까지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연구들은 대부분 18세기 이전의 국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거나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과 관형화 구성

2) 매김마디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절이다. 매김마디의 유형에는 ‘-니’ 매김마디, ‘-르’매김마디가 있다.

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시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어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시적 연구에 치우치거나 통시적 연구에 치우쳐있어 공시적 특징과 통시적인 특징을 동시에 다룬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기 국어를 대상으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공시적 측면에서 파악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전 국어 및 현대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와 그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이다.

20세기 초기 국어를 연구하려면 그 당시의 국어가 반영된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 한글판³⁾을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논의한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창간된 신문으로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탄압 속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발간한 신문으로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분리되어 발행되었다.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만들었지만 국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있어 한글판을 새로 창간하게 되고, 결국 <대한매일신보>는 국한문판, 영문판, 한글판으로 분리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신속한 보도와 준열한 논설로써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대한매일신보>가 가지는 그 의의는 매우 크다.

<대한매일신보>는 약 7년간 발행된 신문으로 20세기 초기 국어의 특징을 대략

3) <대한매일신보>한글판에서 1904년부터 1910년까지 1906년을 제외하고 논설 883개, 기사 151개, 별보 106개, 사설 3개를 분석하였다.

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세기 초기의 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있어 <대한매일신보>는 중요한 자료라 판단되며, 그 당시의 국어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국한문판보다는 한글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0세기 초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음운, 표기, 어휘 등의 문법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내포문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소 부진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기 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포문이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할 때 간접 관할하는 구성을 말한다. 내포문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명사구 내포문 구성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간접 관할할 때, 명사구를 통해 관할하는 구성이다.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하위유형으로는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이 있다. 명사화 구성은 하위문장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구성으로,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명사(구)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관형화 어미 ‘-ㄴ’과 ‘-르’가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대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검토하고, 명사구 내포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을 분석하여 명사구 내포문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는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분석하려면 연구 대상인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한계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논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이며,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명사화 구성에서는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여러 제약을 살펴볼 것이고, 관형화 구성에서는 관형화 구성의 유형, 관형화 어미와 관련한 여러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명사화 구성과 달리 관형화 구성의 기능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관형화 어미가 관여하는 관형절은 명사구의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단순히 관형어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사나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조사가 결합하여야 하는데, 명사화 어미가 관여하는 명사화 구성은 그 자체가 명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 명사화 어미에 직접 조사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관형화 구성의 경우 관형화 어미가 관여하는 관형절이 명사구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형화 어미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에 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형화 어미가 관여하는 관형절은 단순히 관형어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형화 구성의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은 논의하지 않겠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파악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토대로 문헌자료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문헌자료 안의 언어 현상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이 방법은 문헌을 읽고 분석하면서 언어 현상을 하나하나 추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문헌에 쓰인 국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언어 현상을 추출하는 방법은 귀납적 연구방법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추출할 것인데, 그 순서로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를 중심으로 명사화 구성을 추출하고, 그 다음은 관형화 어미 ‘-ㄴ’과 ‘-ㄴ’을 중심으로 관형화 구성을 추출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한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기능, 상위문장의 서술어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제약 등을 파악할 것이며, 추출한 관형화 구성은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분류하고 그 형태와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 등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값을 얻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위의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첫째,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이론 검토이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먼저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에 대한 분석이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명사화 구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

화 구성이 가지는 형태·통사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형태적 특성으로는 명사화 어미가 가지는 제약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통사적 특성으로는 상위문장 안에서 명사화 구성이 수행하는 문장성분으로의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의 분포양상을 통해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도 확인해 볼 것이다.

셋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에 대한 분석이다. 관형화 구성 역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관형화 구성 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내포문 명사로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올 수 있다. 따라서 내포문 명사를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로 나누고 관형화 구성의 하위유형인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 ‘-ㄴ’과 ‘-ㄴ’에 대한 제약도 살펴볼 것이고, 추가적으로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확인해 볼 것이다.

II. 명사구 내포문 구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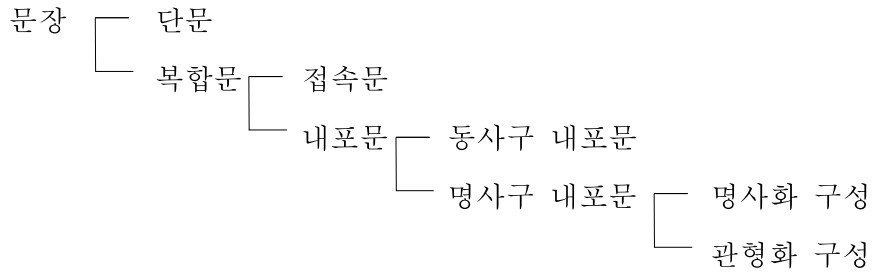
문장에서 서술어는 가장 중요한 문장성분이며, 대개 동사, 형용사, 지정사(-이다) 등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서술어가 가지는 기능을 서술기능이라 하는데, 이 서술기능은 문장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문장은 서술기능이 몇 번 나타나는지에 따라 단문과 복합문으로 나뉜다.⁴⁾ 단문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고, 복합문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한 문장이 어떠한 문장을 관할할 때, 관할하는 문장을 상위문장이라고 하고, 관할되는 문장을 하위문장이라고 한다. 복합문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뉜다. 접속문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할 때 직접 관할하는 구성이고, 내포문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관할할 때 간접 관할하는 구성이다.

내포문은 상위문장이 무엇을 통해 하위문장을 간접 관할하느냐에 따라 동사구 내포문 구성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동사구 내포문 구성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간접 관할할 때 동사구를 통해 관할하는 구성이고, 명사구 내포문 구성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명사구를 통해 간접 관할하는 구성이다. 명사구 내포문 구성은 또다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명사화 구성은 하위문장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여 내포문을 이루는 구성이고,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 단문은 서술기능이 한 번 나타나고 복합문은 서술기능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이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는 횟수로도 설명가능하다. 즉 단문은 주어-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이고, 복합문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주어는 문장성분 중 필수 성분이지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술어는 쉽게 생략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문인지 복합문인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서술어이다.

[그림 1] 문장의 유형



이 장에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의 이론을 살펴본다. 명사화 구성에서는 상위문장 안에서 명사화 구성이 어떻게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지와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명사화 어미의 제약으로 상위문장의 서술어와의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을 살펴본다. 관형화 구성에서는 관형화 구성의 하위유형인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을 살펴보고,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가 가지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 살펴보는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이론이며, 이러한 내용이 이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될 것이다.

1. 명사화 구성

명사화 구성은 하위문장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여 내포문을 이루는 구성이다. 내포문 구성에는 내포문 구성에 관여하는 어미가 있다. 이를 내포문 어미라 하는데,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를 명사화 어미라고 한다. 명사화 어미로는 ‘-(으)ㄴ’과 ‘-기’가 있다.

- (1) ㄱ. 동생은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음을 알았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 ‘-(으)ㄴ’

→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음

ㄴ. 나는 철수가 고향에 내려가기를 원한다.

철수가 고향에 내려가다 + -기

→ 철수가 고향에 내려가기

(1)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관여하는 명사화 구성이다. (1ㄱ)은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하는 명사화 구성으로 하위문장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에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한 경우이며, (1ㄴ)은 명사화 어미 ‘-기’가 관여하는 명사화 구성으로 하위문장인 ‘철수가 고향에 내려가다’에 명사화 어미 ‘-기’가 관여한 경우이다. (1ㄱ)처럼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하는 명사화 구성을 ‘-(으)ㄴ’ 명사화 구성이라 하고, (1ㄴ)처럼 명사화 어미 ‘-기’가 관여하는 명사화 구성을 ‘-기’ 명사화 구성이라 한다.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으로서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한다.

첫째,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다.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언이나 체언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격조사라는 격조사가 결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주격조사는 ‘-이/가’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주체를 높일 때에는 ‘-께서’가 쓰이고, 주어가 단체일 때에는 ‘-에서’가 쓰인다. 또 체언이나 체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한다.

(2) ㄱ. 그가 학생임이 나를 놀라게 했다.

ㄴ. 나는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

(2)는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2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로, (2ㄴ)은 ‘-기’ 명사화 구성에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주격조사는 ‘-기’ 명사화 구성에서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 (3) ㄱ.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ㄴ. 나는 집에 가기 싫다.

(3)은 ‘-기’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3ㄱ)처럼 ‘-기’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주격조사 ‘-가’는 (3ㄴ)처럼 생략이 가능하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 주격조사 ‘-가’가 생략되어도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음은 변함없다. 이러한 주격조사의 생략은 ‘-기’ 명사화 구성에서만 가능하며,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생략이 어렵다.

- (4) ㄱ. 철수가 교실에 있음이 신기하다.
 ㄴ. * 철수가 교실에 있음 신기하다.

(4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4ㄴ)처럼 ‘-(으)ㄴ’ 명사화 구성에 결합한 주격조사 ‘-이’를 수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으)ㄴ’ 명사화 구성보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 주격조사의 생략이 자연스럽다.

둘째,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다.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는 말이다.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목적격조사 ‘-을/를’이 결합한다.

- (5) ㄱ. 나는 부모님이 학교에 왔음을 알았다.
 ㄴ. 부모님은 동생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한다.

(5)는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5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에 목적격조사 ‘-을’이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5ㄴ)은 ‘-기’ 명사화 구성에 ‘-를’이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목적격조사는 ‘-기’ 명사화 구성에서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 (6) ㄱ. 영희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했다.
 ㄴ. 영희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원했다.

(6)은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6ㄱ)처럼 ‘-기’ 명사화 구성이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목적격조사 ‘-를’은 (6ㄴ)처럼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도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목적격조사의 생략이 어렵다.

- (7) ㄱ. 나는 철수가 바다에 놀러갔음을 몰랐다.
 ㄴ. *나는 철수가 바다에 놀러갔음 몰랐다.

(7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에 목적격조사 ‘-을’이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7ㄴ)처럼 ‘-(으)ㄴ’ 명사화 구성에 결합한 목적격조사 ‘-을’을 수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으)ㄴ’ 명사화 구성보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 목적격조사의 생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셋째,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부사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성분이다. 부사어를 형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으나, 기본적으로 체언이나 체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다양한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한다. 부사격조사는 대표적으로 ‘-에’, ‘-으로’, ‘-와/과’, ‘-보다’ 등이 있다.

- (8) ㄱ. 나는 그가 학생임에 놀란다.
 ㄴ. 이곳의 운동장은 학생이 공을 차기에 적합하다.

(8)은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8ㄱ)은 ‘-(으)ㄴ’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에’가, (8ㄴ)은 ‘-기’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와 관련이 있다. 그 제약으로는 상위문장의 서술어 결합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등이 있다.

먼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보이는 제약이다. 명사화 구성은 복합문 유형으로 두 개의 서술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명사화 어미는 제약을 보인다. 하위문장의 서술어는 결합 제약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권재일(1981), 서은아(1997) 등의 많은 연구에서 명사화 어미와 관련한 서술어와의 제약은 빠지지 않는 연구내용이었다. 그만큼 명사화 어미와 상위문장의 서술어의 관계는 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른 명사화 어미의 제약은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서술어,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서술어, 명사화 어미 모두를 허용하는 서술어로 구분할 수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는 다음과 같다.

(9) ㄱ. 철수는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알았다.

ㄴ. 우리는 그가 심하게 긴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ㄷ. 반장은 선생님께 체육대회에서 우승했음을 전했다.

(9ㄱ)의 ‘알다’, (9ㄴ)의 ‘느끼다’와 같은 지각동사⁵⁾는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이다.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는 지각동사가 대부분이지만 (9ㄷ)의 ‘전하다’처럼 전달의 의미를 지닌 동사도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한다.⁶⁾

(10) ㄱ. * 철수는 주전자가 바닥에 떨어졌기를 알았다.

5) 지각동사란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느끼다’, ‘듣다’, ‘보다’ 등이 해당한다. 또 ‘추측하다, 의심하다, 기억하다, 짐작하다, 알다, 모르다, 확인하다’ 등의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 역시 지각동사에 포함된다.

6) 전달의 의미를 지닌 동사는 ‘전하다, 말하다, 묻다, 발표하다, 전달하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으)ㄴ’ 명사화 어미에만 결합하는 서술어로는 ‘드러나다, 발견하다, 찾다, 밝히다’ 등이 있다.

ㄴ. * 우리는 그가 심하게 긴장하고 있기를 느꼈다.

ㄷ. * 반장은 선생님께 체육대회에서 우승했기를 전했다.

이와 같은 서술어들은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기에 (10)처럼 ‘-기’ 명사화 어미가 쓰일 경우는 그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는 다음과 같다.

(11) ㄱ. 책은 불에 타기가 쉽다.

ㄴ. 나는 택배가 오기를 기다린다.

ㄷ. 강아지는 집에 들어오기는 한다.

(11ㄱ)의 ‘쉽다’처럼 어떤 가능성을 뜻하는 동사⁷⁾, (11ㄴ)의 ‘기다리다’와 같이 기대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이다. (11ㄷ)의 ‘하다’도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서술어로 이때의 ‘하다’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를 강조하는 구성에서 상위문장의 서술어가 ‘하다’로 대치되어 실현된 경우이다.⁸⁾ 즉, (11ㄷ)은 원래 ‘강아지는 집에 들어오기는 들어온다.’라는 문장으로 상위문장의 서술어인 ‘들어오다’를 강조하고 있는 구성이다. 이때 상위문장의 서술어인 ‘들어오다’가 ‘하다’로 대치되어 실현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상위문장의 서술어를 강조하기 위해 대치된 ‘하다’는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한다.

다음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 모두를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이다.

(12) ㄱ. 나는 암벽등반에 성공함을 원한다.

나는 암벽등반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ㄴ. 그는 친구와 학교에 걸어감을 좋아한다.

그는 친구와 학교에 걸어가기를 좋아한다.

7) 모든 가능성을 뜻하는 동사가 ‘-기’ 명사화 어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사 ‘가능하다’는 ‘-음’ 명사화 어미에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재일(1985)에서는 동사의 의미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8)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1985, 128쪽.

(12ㄱ)의 ‘원하다, 바라다’ 등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뜻을 지닌 동사와 (12ㄴ)처럼 ‘좋다, 싫다, 기대하다’ 등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 모두를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해당한다.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또 다른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이 있다.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명사화 어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가지는 제약이다.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는 현실법⁹⁾의 시제어미 ‘-∅-’,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에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는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 결합이 제약된다.

(13) ㄱ. 나는 그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ㄱ'. * 그가 노력하고 있-더-(으)ㄴ

ㄴ.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ㄴ'. * 비가 내리-더-기

(13)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와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의 결합 제약을 보여 준다.¹⁰⁾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결합할 때 제약은 없지만,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은 제약된다.

(14) ㄱ. 나는 동생이 병원에 잠을 요구하다.

ㄱ'. * 나는 동생이 병원에 잠음을 요구하다.

ㄴ. 나는 동생이 병원에 가기를 재촉하다.

9) 본 연구의 시제법은 허용의 때때김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허웅,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1987)

10) 권재일(1985)에 따르면 명사화 어미와 회상법의 시제어미와의 제약은 명사화 어미의 의미 특성과 시제어미가 가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은아(1996)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은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뜻하고, ‘-기’는 상황보다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명사화 어미는 현재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회상의 뜻을 지닌 회상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ㄴ. * 나는 동생이 병원에 갔기를 재촉하다.

(14)는 명사화 어미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의 결합에 있어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결합할 때,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완결법 시제어미 ‘-았/었-’의 결합이 제약된다. (14)처럼 ‘요구하다’와 같은 요구를 뜻하는 동사나 ‘재촉하다, 결심하다’ 등의 동사가 상위문장의 서술어일 때,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은 명사화 어미와 결합이 제약된다.

마지막으로 명사화 어미와 높임법의 결합이다. 명사화 어미 ‘-(으)ㄴ’은 주체높임법을 나타내는 어미 ‘-시-’와 자유롭게 결합한다.¹¹⁾ 명사화 어미 ‘-기’ 역시 주체높임법을 나타내는 어미 ‘-시-’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추가적으로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어미 ‘-(으)옵/으오-’¹²⁾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명사화 어미 ‘-(으)ㄴ’은 ‘-시-’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나타내며, 명사화 어미 ‘-기’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마찬가지로 ‘-시-’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으)옵/으오-’이라는 어미와 결합하여 상대높임법을 나타낸다.

(15) 나는 아버지께서 학교에 오심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학교에 오시기를 원한다.

(15)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에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가 결합한 경우이다. 위의 (15)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는 높임어미 ‘-시-’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나타낸다. 그러나 서은아(1996)는 ‘-(으)ㄴ’ 명사화 어미와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의 결합은 문어체 문장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³⁾ 명사화 어미 ‘-기’와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어미 ‘-(으)옵/으오-’ 결합 역시 문어체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어미 ‘-(으)옵/으오-’가 예스리

11) 서은아(1997)에 따르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와의 결합은 자유로우나 다만 문장의 주어 특성에 따라 높임법 어미의 결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12) 상대높임법의 실현은 대개 종결어미에 의해 일어나지만 어말어미외에도 ‘-(으)옵/으오-’, ‘-삼/사옵/사오-’, ‘잡/자옵/자오-’와 같은 어미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남기심,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2001, 379쪽.)

13) 서은아, 「현대국어의 이름법 연구」,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5, 한말연구학회, 1996, 32쪽.

운 표현으로 글에서만 간혹 보이고, 말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하위유형인 명사화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사화 구성은 하위문장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내포문 구성으로 이러한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어미로는 ‘-(으)ㄴ’과 ‘-기’가 있다.

명사화 구성은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와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주격 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생략이 어려우나 ‘-기’ 명사화 구성에서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른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이 있다.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명사화 어미와 관련이 있다.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른 명사화 어미 제약은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서술어,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서술어, 명사화 어미 모두를 허용하는 서술어로 분류할 수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서술어로는 ‘알다’, ‘전하다’ 등이 있고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서술어로는 ‘쉽다’, ‘하다’ 등이 있으며 명사화 어미 모두를 허용하는 서술어로는 ‘원하다’, ‘싫다’ 등이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는 현실법의 시제어미 ‘-∅-’,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자유로우나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현대국어에서 명사화 어미와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의 결합은 크게 없어 자유로이 가능하다.

2. 관형화 구성

관형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의 하위유형으로, 관형절과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함께 내포문을 이루는 구성이다. 관형화 구성은 명사화 구성과 다르게 하위문장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하위문장이 관형절을 이루고 있어 명사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사가 함께 결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사화 구성이 하위문장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어떠한 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형성하는 구성이다. 관형화 구성은 명사화 구성과 마찬가지로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가 있는데, 이를 관형화 어미라고 한다. 관형화 어미로는 ‘-ㄴ’¹⁴⁾과 ‘-ㄹ’이 있다.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는 구성을 ‘-ㄴ’ 관형화 구성이라 하며, 관형화 어미 ‘-ㄹ’이 관여하는 구성을 ‘-ㄹ’ 관형화 구성이라 한다.

(16) ㄱ. 나는 철수가 읽는 책을 좋아한다.

ㄴ. 내가 꾸밈 교실은 굉장히 깨끗하다.

(16)은 관형화 구성이다. (16ㄱ)은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는 ‘-ㄴ’ 관형화 구성, (16ㄴ)은 관형화 어미 ‘-ㄹ’이 관여하는 ‘-ㄹ’ 관형화 구성이다. (16)처럼 관형화 구성은 ‘철수가 읽는’이라는 관형절과 ‘책’이라는 명사로 이루어져 명사구의 기능을 하는 내포문 구성이다. (16)의 ‘책’처럼 관형화 구성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내포문 명사 혹은 머리명사라고 한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지는 내포문 구성이다. 이때 내포문 명사는 자립명사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도 쓰일 수 있다. 자립명사는 꾸며주는 말의 도움이 없어도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고,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명사로 관형절을 필요로 한다.¹⁵⁾

(17) ㄱ. 그는 내가 도서관에서 마실 것을 가지고 왔다.

ㄴ. 철수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은 몰랐다.

ㄷ. 아기는 엄마를 빼다 박은 듯 닮았다.

ㄹ.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가 4일이 지났다.

14) 관형화 어미 ‘-ㄴ’은 ‘-은’, ‘-는’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5)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기에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한다. 의존명사가 명사로 인정받는 것은 관형어로부터 꾸밈을 받을 수 있고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86, 123쪽.) 관형어는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사, 관형절로 실현 가능하다. 의존명사로 는 것, 듯, 양, 줄, 뿐, 데, 대로, 지, 수, 등, 리, 만, 척, 체, 터, 탓, 한, 중, 바, 때문, 셈, 이 등이 있다.

(17)은 의존명사가 내포문 명사인 관형화 구성이다. (17ㄱ)은 ‘것’, (17ㄴ)은 ‘줄’, (17ㄷ)은 ‘듯’, (17ㄹ)은 ‘지’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로 자리하고 있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빠져나가 꾸밈을 받는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18) 영화는 친구가 본 영화를 좋아한다.

→ 영화는 [친구가 (영화를) 본]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영화)

(18)은 관형절 안의 목적어인 ‘영화’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 관계화 구성이며, 관형절 안의 목적어와 내포문 명사는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관계화 구성은 또다시 주어, 주어,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9) ㄱ. 그는 종일 넷물에 떠가는 나뭇잎만 보고 있다.

→ 그는 종일 [(나뭇잎이) 넷물에 떠가는] 나뭇잎만 보고 있다.

ㄴ. 영화는 친구가 본 영화를 좋아한다.

→ 영화는 [친구가 (영화를) 본] 영화를 좋아한다.

ㄷ. 그녀는 벚꽃이 핀 봄을 좋아한다.

→ 그녀는 [벚꽃이 (봄에) 핀] 봄을 좋아한다.

(19)는 각각 관형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다. (19ㄱ)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있던 ‘나뭇잎’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 관계화 구성이고, (19ㄴ)은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로 있던 ‘영화’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 관계화 구성이며, (19ㄷ)은 관형절 안에서 부사어로 있던 ‘봄’이 빠져

나가 내포문 명사가 된 관계화 구성이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가 아닌 의존명사일 때도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0) ㄱ. 그는 모자 쓴 이를 모른다.

ㄴ. 나는 그가 손에 든 것을 좋아한다.

ㄷ. 그녀가 사는 테는 여기서 가깝다.

(20)은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가 아닌 의존명사인 관계화 구성이다. (20ㄱ)은 관형절 안에서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고, (20ㄴ)은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며, (20ㄷ)은 관형절 안에서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다.

보문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별개의 명사가 결합하는 구성이다. 이때 결합한 별개의 명사가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가 되며,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21) 철수는 영희가 차를 샀다는 소문을 들었다.

→ 철수는 [영희가 차를 샀다는] 소문을 들었다. (차≠소문)

(21)은 보문화 구성이다. (21)처럼 보문화 구성의 관형절은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은 완전한 문장¹⁶⁾을 형성하고 있다. (21)의 내포문 명사인 ‘소문’은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보문화 구성 역시 내포문 명사로 자립명사뿐만 아니라 의존명사가 올 수 있다.

(22) ㄱ. 나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16)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학교에 간다.’ 등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의 예시이다. 즉, 완전한 문장은 문장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문장성분들이 빠지지 않은 문장이라 하겠다.

ㄴ. 그녀는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는 줄도 모른다.

(22)는 보문화 구성으로 (22ㄱ)은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인 보문화 구성이고, (22ㄴ)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인 보문화 구성이다.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들은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와 관련이 있다. 관형화 어미 ‘-ㄴ’과 ‘-ㄴ’이 가지는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 등이 있다.

먼저, 관형화 어미 ‘-ㄴ’과 ‘-ㄴ’이 시제어미와 결합할 때 가지는 제약이다. 관형화 어미는 내포문 어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제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⁷⁾ 여기서는 관형화 어미 ‘-ㄴ’을 ‘-(으)ㄴ’과 ‘-는’으로 세분화하여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을 살펴보겠다. 이는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이 가지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형화 어미 ‘-(으)ㄴ’은 현실법의 시제어미 ‘-∅-’,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은 가능하나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은 제약된다.

(23) ㄱ. 그는 외투를 입은 그녀를 보았다.

→ 외투를 입-∅-(으)ㄴ 그녀

ㄴ. 그는 외투를 입던 그녀를 보았다.

→ 외투를 입-더-(으)ㄴ 그녀

ㄷ. * 그는 외투를 입-었-은 그녀를 보았다.

ㄹ. * 그는 외투를 입-겠-은 그녀를 보았다.

(23ㄱ)은 관형화 어미 ‘-(으)ㄴ’과 현실법의 시제어미 ‘-∅-’가 결합한 경우이고, (23ㄴ)은 관형화 어미 ‘-(으)ㄴ’과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가 결합한 경우로, 관형화 어미 ‘-(으)ㄴ’은 현실법과 회상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에서 제약이 없다. 그러나 (23ㄷ)과 같이 관형화 어미 ‘-(으)ㄴ’과 완결법의 시제어미 ‘-었-’의 결합

17) 관형화 어미 ‘-(으)ㄴ’은 완결법의 시제어미, 관형화 어미 ‘-는’은 현실법의 시제어미, 관형화 어미 ‘-ㄴ’은 미정법의 시제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은 제약된다. 이는 완결법의 시제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형화 어미 ‘-(으)ㄴ’에 또다시 완결법의 시제어미 ‘-었-’이 결합하여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재일(1985)는 이와 같이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진 어미와 시제어미가 중복으로 결합하면 제약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 (23ㄷ)과 같이 관형화 어미 ‘-(으)ㄴ’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은 제약된다. 그 이유는 관형화 어미 ‘-(으)ㄴ’이 가지는 완결법의 시제어미 기능과 ‘-겠-’이 가지는 미정법의 시제어미 기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형화 어미 ‘-는’은 현실법의 시제어미 ‘-∅-’와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24) *그는 외투를 입-더-는 그녀를 보았다.

(24)와 같이 관형화 어미 ‘-는’과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의 결합은 제약된다. 관형화 어미 ‘-는’과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의 결합 역시 다음과 같이 제약된다.

(25) ㄱ. *그는 외투를 입-었-는 그녀를 보았다.

ㄴ. *그는 외투를 입-겠-는 그녀를 보았다.

(25ㄱ)은 관형화 어미 ‘-는’과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의 결합 제약, (25ㄴ)은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 제약을 보여준다. (25)와 같이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의 결합이 제약되는 이유는 관형화 어미 ‘-는’이 가지는 현실법의 시제어미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형화 어미 ‘-르’은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26) ㄱ. *그는 외투를 입-겠-을 그녀를 보았다.

ㄴ. *그는 외투를 입-었-을 그녀를 보았다.

ㄷ. *그는 외투를 입-더-을 그녀를 보았다.

관형화 어미 ‘-ㄷ’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결합이 어려우나 다음의 (27)과 같이 그 제약이 사라지기도 한다.

(27) 그는 그녀가 청바지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7)은 관형화 어미 ‘-ㄷ’과 완결법의 시제어미 ‘-었-’이 결합한 경우이다. 관형화 어미 ‘-ㄷ’과 완결법의 시제어미 ‘-었-’의 결합은 제약되지만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그 제약이 사라지기도 한다.

다음은 내포문 명사에 따른 관형화 어미의 제약이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문장 내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자립명사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꾸며주는 말을 필요로 하는 의존명사가 내포문 명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로 나뉘어서 내포문 명사에 따른 관형화 어미 ‘-ㄷ’과 ‘-ㄷ’의 제약을 살펴보겠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와의 제약은 보문화 구성에서 나타난다. 자립명사에 따른 관형화 어미의 제약은 자립명사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28) ㄱ. * 그녀가 청바지를 입은 필요

ㄴ. * 그녀가 청바지를 입는 필요

ㄷ. * 그녀가 청바지를 입을 뒤에

권재일(1985)의 정리에 따르면 (28)의 ‘필요’, ‘뒤’ 같은 자립명사가 관형화 어미 ‘-ㄷ’과 ‘-ㄷ’을 제약한다.¹⁸⁾ (28ㄱ)은 자립명사인 ‘필요’가 관형화 어미 ‘-(으)ㄷ’을 제약하는 경우이다. ‘필요’이외에 ‘수단’, ‘가설’과 같은 자립명사도 관형화 어미 ‘-(으)ㄷ’을 제약한다. (28ㄴ)은 자립명사 ‘필요’가 관형화 어미 ‘-는’을 제약하는 경우이다. ‘결과’, ‘이후’, ‘뒤’와 같은 자립명사 역시 관형화 어미 ‘-는’을 제약한다.

18) 권재일, 앞의 책, 78-79쪽.

(28ㄷ)은 자립명사 ‘뒤’가 관형화 어미 ‘-ㄷ’을 제약하는 경우이다. ‘동기’, ‘반성’, ‘이상’, ‘다음’ 등의 자립명사도 관형화 어미 ‘-ㄷ’를 제약한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도 관형화 어미가 제약된다. 대다수의 의존명사가 관형화 어미와의 결합이 허용되나, 일부 의존명사는 관형화 어미 ‘-ㄴ’과 ‘-ㄷ’을 제약한다.

- (29) ㄱ. 그녀가 청바지를 입*^{-은}/_{*는}/을 리
 ㄴ. 그녀가 청바지를 입*^{-은}/_는/을 수
 ㄷ. 그녀가 청바지를 입*^{-은}/_{*는}/을 뿐

(29)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로, 의존명사에 따라 제약되는 관형화 어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9ㄱ)의 의존명사 ‘리’는 관형화 어미 ‘-ㄷ’만 허용하고,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29ㄴ)의 의존명사 ‘수’는 관형화 어미 ‘-는’, ‘-ㄷ’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한다. (29ㄷ)의 의존명사 ‘뿐’ 역시 관형화 어미 ‘-ㄷ’의 결합만을 허용하고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의존명사 ‘리’, ‘뿐’이외에도 의존명사에는 ‘만’, ‘뿐’, ‘즈음’ 등이 관형화 어미 ‘-ㄷ’만을 허용하고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의존명사 ‘수’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 특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관형화 어미 ‘-ㄷ’만을 허용하거나, 관형화 어미 ‘-는’만을 허용한다. ‘능력’을 뜻하는 의존명사 ‘수’는 관형화 어미 ‘-ㄷ’만을 허용하며, ‘경우’를 뜻하는 의존명사 ‘수’는 관형화 어미 ‘-는’만을 허용한다.¹⁹⁾ 따라서 의존명사 ‘수’는 ‘수’가 가지는 의미 특성에 따라 관형화 어미를 제약한다.

지금까지 현대국어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하위유형인 관형화 구성을 살펴보았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관형화

19) 권재일(1985)에서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의 관형화 어미 제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가. ‘-을’만 제약: 김, 때문, 바람, 양<...것처럼>, 족족, 차, 척, 체, 측, 통, 티, 편
 나. ‘-은’만 허용: 갠, 채
 다. ‘-는’만 허용: 등, 법<경우>, 수<경우>, 중, 품, 한
 라. ‘-을’만 허용: 마른, 나위, 널, 따름, 리, 만, 망정, 뿐, 법<가능>, 뿐, 수<능력>, 양<의향>, 짝, 줄<능력>, 즈음, 쫓, 턱

어미 ‘-ㄴ’과 ‘-ㄹ’이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뉘는데,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이때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관계화 구성은 다시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보문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별개의 명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이때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며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관형화 어미와 관련이 있으며, 그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 등이 있다. 관형화 어미 ‘-(으)ㄴ’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제약되고, 관형화 어미 ‘-는’은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이 제약되며, 관형화 어미 ‘-ㄹ’은 미정법, 완결법, 회상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그러나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ㄹ’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관형화 어미는 내포문 명사에 따라 제약된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관계화 구성에서는 제약이 없으나 보문화 구성에서는 자립명사의 특성에 따라 제약을 가진다.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자립명사로는 ‘필요’, ‘수단’ 등이 있고, 관형화 어미 ‘-는’을 제약하는 자립명사로는 ‘필요’, ‘결과’ 등이 있다. 관형화 어미 ‘-ㄹ’을 제약하는 자립명사로는 ‘뒤’, ‘이상’ 등이 있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의존명사는 ‘리’, ‘수’ 등이 있고, 관형화 어미 ‘-는’을 제약하는 의존명사는 ‘리’, ‘뿐’ 등이 있으며, 관형화 어미 ‘-ㄹ’을 제약하는 의존명사는 ‘경우’의 뜻을 가지는 ‘수’ 등이 있다.

Ⅲ.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명사구를 통해 간접 관할할 때, 관할되는 하위문장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여 내포문을 이루는 구성을 말한다.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하는 ‘-(으)ㄴ’ 명사화 구성과 명사화 어미 ‘-기’가 관여하는 ‘-기’ 명사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분석했던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여러 제약들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의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20세기 이전 국어 및 현대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확인해 볼 것이다.

1. ‘-(으)ㄴ’ 명사화 구성

‘-(으)ㄴ’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하는 구성이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을 대상으로 ‘-(으)ㄴ’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기능과 제약을 살펴본다.

1) ‘-(으)ㄴ’ 명사화 구성의 기능

명사화 구성은 격조사 및 보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한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은 대략 5,000여개이며 그 중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2,000여개,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1,100여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1,000여개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수치는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

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이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1) 주어

주어는 문장 안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명사나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에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하거나 보조사 ‘-은/는’이 결합하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으)ㄴ’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0) ㄱ. 올흔일에 싸흠흠이 복이되고 (논설1904.8.9. 20호)

그 띠일신문에 계지흠이 여좌하니 (논설1904.8.25. 34호)

만일 각국에서 중립위반흠이 곳치지 아니하면 (논설1905.1.7. 2권3호)

한인 공립신보에 청인의 중셔일보를 등지함 잇긋더라 (별보1907.7.6. 33호)

풍계와 순서가 정제흠이 무한이 지명했스니 (논설1907.11.15. 139호)

제공씨서 빅성을 스랑흐십이 지극하샤 (별보1908.1.25. 194호)

한국 넛적에 군스의 강흠이 엇지 라마를 당흐리오(논설1909.1.29. 487호)

행복을 증진케흠이 가하니 (논설1910.8.4. 929호)

ㄴ. 나라에 손히됨은 잇스되 (논설1904.8.27. 36호)

영국 신문지들의 분로흠은 의례스건이오 (논설1905.3.8. 51호)

한국 황테씨서 즈쥬의 열심흐십은 가히 생각홀지로다 (논설1907.8.13. 65호)

우리나라 빅성들이 그 약도들을 도하흐지 아니흠은 분명하니 (별보 1907.10.29. 126호)

쥬딩에서 선비를 디접흠은 더러흐고 (논설1908.1.15. 186호)

교육의 진보가 발달됨은 보지 못흐겟스며(기서1908.1.8. 180호)

한국인에게 공업으로 고동흠은 크게 불가흐고 (논설1909.4.25. 557호)

큰자가 작은자를 병탄흡은 넋적브터 잇는바 | 라 (논설1910.2.23. 797호)

(30)은 <대한매일신보>에서 ‘-(으)口’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30ㄱ)은 ‘-(으)口’ 명사화 구성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30ㄴ)은 ‘-(으)口’ 명사화 구성에 보조사 ‘-은’이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2) 목적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적어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명사나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에 목적격조사 ‘-을/를’이 결합하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으)口’ 명사화 구성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1) 우리는 일본이 조흔 명예 손상됨을 생각하야 (논설1904.8.9. 20호)

일본 포병이 아병의 탄환이 우비흡을 무릅쓰고 (논설1904.10.3. 66호)

론돈타임쓰 신문이 벌셔 일영동맹의 범위를 확장흡을 찬조하엿스니 (논설1905.2.15. 2권 34호)

한국 빅성들이 황데피셔 국가에 충성하심을 존경하야 (논설1907.8.13. 65호)

우리가 스십년러로 일본이 능히 성취흡을 보건디 (논설1907.11.14. 138호)

미국이 동양에서 이민흡을 항거하야 (논설1908.1.22. 191호)

인민이 국가에 더흔 정신이 국가의 발달흡을 브라리오 (논설1908.7.31. 347호)

또 더가 더의 나라 신도의 세력이 미약흡을 근심하야 (논설1909.5.12. 570호)

성취치 못흡을 가히 알지로다(논설1910.7.28. 923호)

세상에서 알지 못흡을 혼탄하야 (논설1910.8.7. 932호)

(31)은 ‘-(으)ㄴ’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으)ㄴ’ 명사화 구성에 목적격조사 ‘-을’이 결합하여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3) 부사어

부사어는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성분이다. 또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이기도 하다. 부사어의 실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으)ㄴ’ 명사화 구성은 부사격조사 ‘-에’, ‘-으로’, ‘-와/과’, ‘-보다’등이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한다. <대한매일신보>에서 ‘-(으)ㄴ’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2) ㄱ. 더욱 갈수록 권리를 취함에 별 일이 만흐니 (논설1904.9.7. 45호)

기량함을 권고함은 전쟁의 성공함에 긴요하다고 말하였도다 (논설 1905.2.22. 2권 39호)

일반 우리 무리는 이 나라이 평화함에 잇기를 원하느 바이니 (논설 1907.11.23.호 146호)

그 구구한 소원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양육함에 지나지 못하것마
는 혹독하다 (논설1908.6.10. 303호)

ㄴ. 려순히면에서도 우금것 서로 상지함으로 수천명 군수를 죽였스되 (논
설1904.10.31. 89호)

폐하의 조종씨서 인민의 디표를 소집하심으로 인민의 의견을 구하섯스
나 (논설1905.2.22. 2권 39호)

타국의 한문을 숭상함으로 제나라 말까지 일허 브린자가 만흐니 (사설
1907.5.23. 1호)

한문만 비함으로 말과 글이 혼글 곳지 못하야 (사설1907.5.23. 1호)

영국 사름 킷킨씨가 일본의 세력이 강성함으로 걱정하느 막음을 못치
못하야 (논설1908.3.4. 233호)

츄흔 소문이 랑자함으로 일반 학도들이 학부에 호소하여 (논설

1909.1.26. 484호)

그러나 세디가 멀고 성인이 나지 아니흐였슴으로 시세가 변하여 (논설
1910.8.26. 936호)

(32)는 ‘-(으)口’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32ㄱ)은 ‘-(으)口’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고, (32ㄴ)은 ‘-(으)口’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으)로’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33) ㄱ. 이는 비컨디 량국 전쟁에 전스통신원이 잇서 전투 사실을 탐지흡과
갓흔지라 (논설1904.9.27. 61호)

아라사셔는 한군에 디흐야 상관흡이 만주안에 아인 상관흡과 갓타흐
여서 (논설1904.11.17. 102호)

영국본터 인민을 디접흡과 일호도 다름이 업시흐는지라 (논설1908.7.2.
322호)

이는 와륙을 모화 노흡과 갓으며 (논설1909.4.17.550호)

렬강국을 향거흡은 계란을 가지고 돌을 칠과 다름이 업스리니 (논설
1910.1.21. 763호)

ㄴ. 이제 일본서 다시 상관흐야 한국정부를 위하고 싱각흡과 갓치흐되 (논
설1904.9.22. 58호)

즐겨흐지 아닐 차 | 업습과 갓치 괴묘흐고 (논설1908.7.8. 327호)

(33)은 ‘-(으)口’ 명사화 구성이 부사격조사 ‘-와/과’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33ㄱ)은 ‘-(으)口’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과’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의 부사격조사 ‘-과’는 비교의 뜻을 지니며 대부분 서술어로는 ‘같다’, ‘다름없다’가 나타난다.²⁰⁾ (33ㄴ)은 ‘-와/과 같이’ 전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이’처럼 용언에서 파생되어 나온 부사는 파생 전의 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때 보충어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그 전체

20) 권재일,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44쪽.

가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²¹⁾ 따라서 ‘-(으)ㄴ’ 명사화 구성에 ‘-와/과 같이’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다음의 (34)도 ‘-(으)ㄴ’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다.

(34) 매미를 비척흙은 찰하리 토디를 일허브림보다 리해가 더욱 심흔 듯 흐도
다 (논설1908.5.30. 295호)

상향에서 오는 소문을 한국본토인중에 광포흡보다 이 신보를 인햐야 (논
설1908.7.2. 322호)

혼단내기를 화친흡보다 만헛는디 (논설1909.7.6. 616호)

목마른 자가 물을 구흡보다 심히 흐니 (논설1909.11.20. 722호)

그 화됨이 총과 칼의 참악흡보다 더흔 차는 무엇이뇨(논설1910.1.28. 777
호)

(34)는 ‘-(으)ㄴ’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보다’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2) ‘-(으)ㄴ’ 명사화 구성의 제약

명사화 구성의 제약은 명사화 어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의 제약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어미 ‘-(으)ㄴ’과 관련이 있는 제약으로 상위문장의 서술어 결합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에 대해 살펴 보겠다.

(1)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거나 명사화 어미 ‘-(으)ㄴ’을 제약한다.

21)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144쪽.

- (35) ㄱ. 이 엇지 헛도이 포착함을 아라 쓰리요 (논설1904.8.12. 23호)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 이글을 지은 자에게 조화가 잇습을 알지 못
 하고 (논설1908.2.25. 216호)
 수일 전 조지에 심참정이 맞춤내 체임이 됨을 보고 (논설1904.8.31. 39
 호)
 무릇 근일에 한국 형편되여감을 보고 (논설1904.11.4. 92호)
- ㄴ. 즈기 양을 조심치 아니함을 발표헛엇스니 (별보1908.7.21. 338호)
 황데찌셔 크게 실력헛심을 말헛고 (별보1908.7.22. 339호)

(35)의 상위문장의 서술어는 명사화 어미 ‘-(으)ㅁ’만을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35ㄱ)처럼 ‘알다’, ‘보다’와 같은 지각동사와 (35ㄴ)처럼 ‘말하다, 발표하다’와 같
 은 전달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명사화 어미 ‘-(으)ㅁ’만을 허용한다.

- (36) ㄱ. 근력에 나라안에 자스들이 국세의 결단남을 슬허헛며 (논설1908.7.26.
 343호)
 각학교에서 그 곤난함을 슬허헛여 (논설1908.11.12. 428호)
 전가의 의복을 엇어 낚히지 못함을 슬허헛여 (논설1910.4.9. 833호)
- ㄴ. 또 한국이 일본보다 압두함은 조금도 바라지 안코 (논설1904.9.10. 48
 호)
 천만세에 영원이 누리기를 싱각함을 곤절히 브라노라 헛엇더라 (기서
 1907.12.3. 153호)
- ㄷ. 청컨디 대한 빅성들도 아모조록 나라의 근본된 직칙이 중함을 싱각하
 야 (논설1904.10.22. 83호)
 연약헌 정부는 조상의 씨친 토디가 중대함을 싱각지 아니헛고 (기서
 1907.7.2. 29호)

(36)의 상위문장 서술어 역시 명사화 어미 ‘-(으)ㅁ’을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36ㄱ)의 ‘싫어하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36ㄴ)의 ‘바라다’와 같이 무엇

인가 요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도 명사화 어미 ‘-(으)ㄴ’을 허용한다. 또 (36ㄷ)의 ‘생각하다’도 명사화 어미 ‘-(으)ㄴ’을 허용한다.

명사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로는 ‘쉽다’, ‘어렵다’, ‘마련이다’, ‘기다리다’ 등의 동사가 있다. 대개 명사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서술어는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2) 시제어미 결합 제약

명사화 어미 ‘-(으)ㄴ’은 시제어미와의 결합에서 제약이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은 현실법의 시제어미 ‘-∅-’,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자유롭다. 그러나 명사화 어미 ‘-(으)ㄴ’과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의 결합은 제약된다.

(37) ㄱ. 그 데삼도는 일본 데국정부가 한국의 독립과 그 강동의 완전케움을
확실 보증한다 흐엿스며 (논설1908.6.28. 319호)

ㄴ. 한국 정부에서 습림법을 이피 반포하엿슴은 세상 사롭이 다 아는 바
| 어니와 (논설1908.10.2. 396호)

날마교를 그 디방에 전포흐엿슴으로 인흐여 (논설1910.5.18. 866호)

(37)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시제어미가 결합한 경우이다. (36ㄱ)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현실법의 시제어미 ‘-∅-’가 결합한 경우이고, (37ㄴ)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완결법의 시제어미 ‘-었-’이 결합한 경우이다.

(38) 특별히 무서운거슨 이제부터는 통감부가 모름대로 일본인을 우리나라에
관리로 세우갓슴이라 (논설1907.8.4. 58호)

(38)은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에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이 결합한 구성이다. 여기서 ‘-(으)ㄴ’ 명사화 구성은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

-’의 결합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의 결합은 위의 (38)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웠다.

(3) 높임법 결합 제약

명사화 어미 ‘-(으)ㄴ’에 결합하는 높임법에는 제약이 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나타난 명사화 어미 ‘-(으)ㄴ’에는 주체높임법만 나타났다. ‘-(으)ㄴ’ 명사화 구성이 주체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명사화 어미 ‘-(으)ㄴ’에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와 결합하는 것이다.

(39) 억천년 종사를 보전케 희심을 희망하여 (기서1907.7.9. 35호)

한국 빅성들이 황대씨서 국가에 충성 희심을 존경하여 (논설1907.8.13. 65호)

제공씨서 빅성을 스랑 희심이 지극하사 (별보1908.1.25. 194호)

대더 동국에 고디대왕들이 순형 희심은 렉스상에 자로 본 바 | 라 (논설 1909.1.15. 478호)

상대 씨서 능치 못 희심이 업스니 (논설1910.3.13. 812호)

(39)는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에 높임법이 나타난 경우로, 명사화 어미 ‘-(으)ㄴ’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2. ‘-기’ 명사화 구성

‘-기’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기’가 관여하는 내포문 구성이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기’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 명사화 구성의 기능

‘-기’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기’에 격조사 및 보조사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한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기’ 명사화 구성은 대략 3,000여개이며 그 중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700여개,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900여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1,000여개이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기’ 명사화 구성이 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1) 주어

‘-기’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기 위해 주격조사 ‘-가’와 보조사 ‘-는’이 결합한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0) ㄱ. 그곳 공격하기가 심히 위험한 일로되 (논설1904.8.20. 30호)
도로 작환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니 (논설1904.9.29. 63호)
장춧 일본 사름이 다 청중하기가 의심업도다 (논설1905.1.7. 2권3호)
스단이 니러나기가 의심업다 헛엇더라 (별보1907.7.17. 42호)
이거슬 진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지라 (논설1907.9.5. 82호)
실제의 성스흠은 브라기가 어려울 지니라 (논설1909.7.11. 621호)
청년이 장년되기가 잠간이니 슌흐다 (논설1909.8.12. 648호)
후부간이라도 화락하기가 어려울지니 (논설1910.8.17. 935호)
- ㄴ. 이러케 화려하게 헛기는 고사^{ᄇᆞᆫ}고 (논설1904.9.12. 49호)
량편이 다 만족히 감화되기는 가망이 적다 헛노라 (논설1905.1.7. 2권3호)
국권 회복하기는 어려울지라 (별보1907.7.7. 34호)
외국인^{ᄇᆞᆫ} 헛라^{ᄇᆞᆫ}는^{ᄇᆞᆫ} 티로^{ᄇᆞᆫ} 헛기는 붓그럽고 (논설1909.1.21. 483호)
이제 이거슬 구원하기는 고샤^{ᄇᆞᆫ}고 (논설1909.2.10. 496호)

그집을 식집이 되게 곶치기는 고사하고 (논설1910.7.1. 900호)

(40)은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40ㄱ)은 ‘-기’ 명사화 구성에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며, (40ㄴ)은 ‘-기’ 명사화 구성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주격조사 ‘-가’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41) ㄱ. 또한 비록 대로에서라고 인력거는 타기가 심히 불편한지라 (논설 1904.10.13. 75호)

ㄴ. 또한 비록 대로에서라고 인력거는 타기 심히 불편한지라

(41)은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 명사화 구성이 주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주격조사 ‘-가’는 (41ㄴ)처럼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41ㄴ)처럼 ‘-기’ 명사화 구성에서 주격조사 ‘-가’를 수의적으로 생략하여도 주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명예는 엇기 어려우며 (논설1904.11.8. 95호)

로국의 세력을 헝헝하기 어려우니 (논설1905.1.11. 2권6호)

업서진 지물을 다시 모호기 어렵도다 (논설1907.12.6. 156호)

엇던 문대로던지 불협한 스단을 니르키기 족족하도다 (논설1908.2.28. 219호)

쇼결과 연희는 심상한 부인녀즈와 시정무식비의 데일 감동하기 쉽고 (논설 1910.7.20. 916호)

또한 이것을 당하기 어려울지로다 (논설1910.8.4. 929호)

(42)는 ‘-기’ 명사화 구성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주격조사가 생략되어도 ‘-기’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명사화 구성에서의 주격조사 생략은 ‘-기’ 명사

화 구성에서만 가능하고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생략이 어렵다.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 주격조사의 생략이 어려운 이유를 전성희(1994)에서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보다 문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²²⁾

(2) 목적어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 목적격조사 ‘-를’과 결합한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3) 스사로 경계하기를 바라고 간권호노라 (논설1904.8.9. 20호)

이 사건 화호흡에 방조하기를 청호엿더니 (논설1904.10.11. 73호)

로국황폐피셔는 인민들이 청구호는 기량안을 허락하기를 청호호시나 (논설 1905.2.22. 2권 39호)

토이기 황폐하피셔는 토이기 데국의 전리호는 규칙을 영원히 고슈하기를 선언호야 (논설1905.3.7. 50호)

한국이 장리에 문명하기를 확실이 밋노라 (별보1907.11.12. 136호)

어려운일에 방비하기를 슈족긋치호고 (논설1907.11.17. 141호)

삼스십 이상된 사롬들이 일직이 회심하기를 빌며 (논설1908.2.16. 209호)

인민이 노레되기를 도화호이로다 (논설1909.10.1. 687호)

유지자의 통일되기를 축원호노라 (논설1910.3.17. 815호)

제군은 힘써서 한국 문명의 시조가 되기를 축원호노라 (논설1910.4.3. 828호)

(43)은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로, 목적격조사 ‘-를’이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

22) 전성희,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개화기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2쪽.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목적격조사 ‘-를’은
수위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44) 남방으로 오는 사람의 담화 신문지 혼장도 구랍하기 슬혀흐며 (논설
1908.5.17. 284호)

더희들은 추슈흐는 일이나 비오는 말을 들기 도화흐느니 (별보1908.7.8.
327호)

직언을 들기 슬혀흐니 (논설1908.11.6. 424호)

소유권 증명도 내기 슬혀흐다가 (기서1909.10.7. 692호)

(44)는 ‘-기’ 명사화 구성이 <대한매일신보>에서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
난 경우이다. ‘-기’ 명사화 구성에서 목적격조사 ‘-를’이 생략되어도 상위문장 안
에서 목적어로의 기능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 목적격조사의 생략은 ‘-기’ 명사
화 구성에서만 나타나며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역시
전성희(1994)에서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문어적 성격이 ‘-기’ 명사화
구성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²³⁾

(3) 부사어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사격조사 ‘-에’,
‘-(으)로’, ‘-와/과’, ‘-보다’ 등과 결합하여야 한다.

(45) 일본 매일신문에 계지흠이 여좌헝기에 좌에 번등흐노라 (논설1904.11.23.
107호)

이 소문이 가히 드를만헝기에 신문에 계지헝야 설명헝기논 하나 (논설
1904.12.13. 123호)

일본군의 형편이 지금은 이런 일을 보호헝기에 확실흠이 맞치지 못헝리
라 (논설1905.2.23. 2권40호)

23) 전성희, 앞의 논문, 24쪽.

장차 대한 정신의 실력을 기르기에 맞당히 도출 결과가 잇도다 (논설 1907.9.29. 102호)

세력가에 출입하야 츄세하기에 분주하는 것도 노래의 성질이오 (논설 1908.2.22. 214호)

불탐을 세우기에 나라의 지정이 정갈하엿스며 (논설1909.10.27. 707호)

(45)는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이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46) 대한서 방조하는 마음에 능히 시행하기로 허락홀듯한디 (논설1904.8.16. 26호)

일본의 청구와 권고를 찬도하기로 하엿는디 (논설1905.1.19. 2권13호)

국민의 정신을 씩여니르키기로 주의 혼지가 오래엿더니 (사설1907.5.23. 1호)

한편씩 사름들이 방장 그 학교를 폐지하기로 연구하고 (논설1909.2.12. 498호)

지금 정부대신들은 디위를 공고케하기로 운동이 총총하니 (논설1910.6.4. 880호)

(46)은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으)로’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46)의 부사격조사 ‘-로’는 약속이나 결정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기로~하다’의 구성으로 자주 쓰인다.

‘-기’ 명사화 구성은 부사격조사 ‘-와’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와’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7) ㄱ. 하늘에 올나가기와 갓하여 (논설1910.7.6. 904호)

ㄴ. 하늘에 올나가서 별을 쓰기와 갓치 어려운 거시 아니오 (논설

1910.8.3.928호)

(47)은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와’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47ㄱ)의 부사격조사 ‘-와’는 비교의 뜻을 지니며, 서술어 ‘같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47ㄴ)의 ‘-와 같이’는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와 같이’와 결합한 ‘-기’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48) 그 나로브터 오십만병을 넘어 세우기가 일본에서 이십오만명의 동병하기보다 걱정이 적을티이로다 (논설1905.1.30. 2권22호)

그런 사름들이 물건이나 아모거슬 사기보다 썩앗기는 쉬운줄노 알아 (별보1907.8.27. 75호)

한국 사름의 말을 엇어 뜻기는 축도에 헝헝기보다도 어렵고 (논설1910.4.5. 829호)

단테력이 굿은 날에는 이 경지의 승첩흙은 손싸다 뒤집기보다 쉬울줄노 밋노라 (논설1910.6.25. 895호)

(48) 역시 <대한매일신보>에서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로, ‘-기’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 ‘-보다’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다음의 (49)도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49) 일본서 동병하기 전에 만쥬에 잇는 군사를 차차 전진하게 흘진디 (논설 1904.9.15. 52호)

대한일보 기자는 공연히 즈귀의게 본경싱기기 전에 마음대로 하는 바를 쫓치며 (논설1904.10.7. 70호)

한국 경성을 써나기 전에도 일본이 우리 황상을 전위케하려는 기미를 알앗스나 (논설1908.9.5. 376호)

그 쌍의 갑과 소출의 다쇼를 확실히 알기 전에 측량갑을 묻져내고 (논설

1908.9.5. 376호)

학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 나라이 먼저 망홀지니 (논설1909.11.25. 726호)

십팔층 디옥에 드러가기 전에야 엇지 회키홀므음이 나리오 (논설
1909.12.17. 745호)

(49)도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49)에서는 ‘-기’ 명사화 구성에 부사격조사가 바로 결합하지 않는다. ‘-기’ 명사화 구성에 명사가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즉, ‘-기’ 명사화 구성에 명사 ‘전’이 먼저 결합하고 그 뒤에 부사격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으)ㄴ’ 명사화 구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전’과 같은 명사도 극히 드물다.

‘-기’ 명사화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50) 일전 우리신보에 연리정향계지하기를 아라사 군함 우리쉬틀링은 포격홀 예비를 운동호야 (논설1904.8.30. 38호)

의병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나라에 물중이라고 토죄호야 (논설
1907.9.18. 93호)

엇던자는 말하기를 공부즈는 지나스사롭이라 (논설1910.8.26. 936호)

(50)은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로, ‘-기’ 명사화 구성에 조사 ‘-를’이 결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기’ 명사화 구성의 제약

‘-기’ 명사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명사화 어미 ‘-기’와 관련이 있다. ‘-기’ 명사화 구성의 제약으로 상위문장의 서술어 결합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을 살펴보겠다.

(1) 상위문장 서술어 제약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거나 명사화 어미 ‘-기’를 제약한다.

(51) ㄱ. 원산 북편 항구 결빙되기를 기다려 (논설1904.9.15. 52호)

우리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노라 (논설1909.3.19. 528호)

ㄴ. 형벌을 당하기로 마련하야 (논설1904.11.2. 91호)

ㄷ. 그 눈덩이를 굴니기는 쉬으나 (논설1905.2.5. 2권27호)

서양을 숨비헛기가쉬우니 (논설1909.8.4. 641호)

경비가 군졸함으로 부지헛기가 어려우며 (논설1907.9.27. 101호)

능히 영웅이 되기가 어려우니 (논설1910.7.24. 920호)

ㄹ. 빅성의 직산이 이곳치 군식흔 때에 실업이 진실노 중헛기논 하나 (논설1908.5.26. 291호)

ㅁ. 죽음에는 한국에 전도흐는거시 급흔줄 알기논 하나 (논설1909.5.11.)

(51)의 상위문장 서술어는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51ㄱ)의 ‘기다리다’, (51ㄴ)의 ‘마련이다’, (51ㄷ)의 ‘쉽다’와 ‘어렵다’, (51ㄹ)의 ‘하다’가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이다. ‘마련이다’의 경우는 ‘-기’만을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이지만, <대한매일신보>에서는 (51ㄴ)이외에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51ㄹ)의 ‘하다’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를 강조하는 구성에서 상위문장의 서술어가 ‘하다’로 대치되어 쓰인 경우이다. 다시 말해, (51ㄹ)은 본래 상위문장의 서술어로 ‘중하다’, ‘알다’가 쓰였는데, 이들을 강조하기 위해 ‘하다’로 대치되어 쓰인 것이다.

(52) ㄱ. 또한 한국사람들이 보기를 묘화하리니 (논설1909.5.22. 579호)

ㄴ. 히로운 화폐가 쏟이 나기를 바라노라 (논설1905.1.25. 2권18호)

조선나라의 중흥스업을 일우기를 곤절히 바라노라 (논설1907.7.16. 41호)

- ㄷ. 그러나 인종 보전하기를 싱각지 아니하고 (논설1907.11.19. 142호)
 더 민회라 흔는자와 대신이라흔는자가 습림의 영업을 권장하기를 싱
각지 아니하고 (논설1908.12.22. 461호)

(52)의 상위문장 서술어 역시 명사화 어미 ‘-기’를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52ㄱ)의 ‘좋다’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 (52ㄴ)의 ‘바라다’와 같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뜻을 지닌 동사, (52ㄷ)의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는 명사화 어미 ‘-기’를 허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이다.

명사화 어미 ‘-기’를 제약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로는 ‘알다’, ‘보다’, ‘느끼다’, ‘발견하다’등의 동사가 있다. 대개 명사화 어미 ‘-기’를 제약하는 서술어는 명사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2) 시제어미 결합 제약

명사화 어미 ‘-기’는 현실법, 완결법, 미정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에서 제약은 없으나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 (53) ㄱ. 내가 강호에 놀기를 즐거하면 (논설1908.9.17. 384호)
 ㄴ. 퇴경성이 리관영씨의게 보내는 글을 본샤에 괴셔흔옛기에 그 전문을
 괴록흔거니와 (기서1909.5.18.575호)
 ㄷ. 규측을 장춧 번역하여 등지흔겻기로 위션 그 훈령을 번역하여 게지흔
니 (논설1908.9.8. 378호)

(53)은 명사화 어미 ‘-기’가 현실법, 완결법, 미정법의 시제어미와 결합한 경우이다. (53ㄱ)은 명사화 어미 ‘-기’와 현실법의 시제어미 ‘-∅-’가 결합한 경우이고, (53ㄴ)은 명사화 어미 ‘-기’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결합한 경우이며, (53ㄷ)은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 결합한 경우이다. 명사화 어미 ‘-기’와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은 제약이 없으나 <대한매일신보>에서 그 예는 드물게 나타났다.

(3) 높임법 결합 제약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기’에 나타날 수 있는 높임법은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에는 주체높임법만 나타났다면 명사화 어미 ‘-기’에는 주체높임법뿐만 아니라 상대높임법까지 나타났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명사화 어미 ‘-기’에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실현하며, 명사화 어미 ‘-기’에 ‘-옵-’이라는 어미가 결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한다.

(54) ㄱ. 우너방으로 과천흐시기를 자쵸 하였스며 (논설1909.1.15. 478호)

넛 성인이 말습흐시기를 (논설1910.6.5. 881호)

첨군즈는 용셔흐시기를 브라노라 (논설1910.6.14. 885호)

ㄴ. 세々히 드르시옵기 바라나이다 (기서1907.7.9. 35호)

우리 나라도 부강흐옵기를 브라느니다 (기서1907.9.12. 88호)

(54)는 명사화 어미 ‘-기’에 높임법 어미가 결합하여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이다. (54ㄱ)은 명사화 어미 ‘-기’와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가 결합한 경우이며, (54ㄴ)은 명사화 어미 ‘-기’와 상대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옵-’이 결합한 경우이다.

3.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

명사화 구성은 상위문장이 하위문장을 명사구를 통해 간접 관할할 때, 하위문장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구성이다.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관여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의 분포 양상을 중심으로 명사화 구성이 이전 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를 살펴보겠다.

고대국어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이 가장 일반화된 명사화 어미이다. 그러나 박진호(1998)는 고대 국어의 이두와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향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명사화 구성을 형성하는 기능은 주로 ‘-ㄴ’과 ‘-ㄴᄃ’이 담당하였다고 보았다.²⁴⁾

15세기부터 16세기의 국어를 중세국어라 하는데, 중세국어의 명사화 어미는 ‘-(으)ㄴ’, ‘-기’ 그리고 ‘-디’가 있었다. 15세기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어말어미 ‘-오/우-’와의 결합이다.²⁵⁾ 15세기 국어의 명사화 어미 ‘-(으)ㄴ’은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하여 ‘-옵, -움, -읍, -읍’²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화 어미 ‘-기’의 쓰임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는 ‘-기’가 명사화 어미로서의 기능보다는 파생접미사로서 기능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또 중세국어의 또 다른 명사화 어미인 ‘-디’는 상위문장의 서술어로 ‘어렵다’, ‘슬프다’, ‘똥다’를 수반한다. 그러나 명사화 어미 ‘-디’의 쓰임 역시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15세기는 명사화 어미 ‘-기’와 ‘-디’의 쓰임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명사화 어미 ‘-(으)ㄴ’이 독보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하여 이루어진 ‘-(으)ㄴ’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보다 독보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16세기에 와서 선어말어미 ‘-오/우-’가 명사화 어미 ‘-(으)ㄴ’ 앞에 불규칙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하고 점차 소멸하면서 파생접미사의 역할을 수행하던 ‘-기’가 명사화 어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화 어미 ‘-(으)ㄴ’이 명사화 구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16세기에 들어서 ‘-기’가 명사화 어미로서 그 쓰임이 점차 확고해지자 ‘-(으)ㄴ’ 명사화 구성이 축소되고 ‘-기’ 명사화 구성이 증가하였다. 또 명사화 어미로서의 ‘-기’의 쓰임이 증가하자 ‘-(으)ㄴ’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15세기의 명사화 어미 ‘-디’는 점차 ‘-기’로 대체되고 17세기 이후에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또, 16세기부터 명사화 어미 ‘-(으)ㄴ’ 뿐만 아니라 명사화 어미 ‘-기’와도 결합하는 상위문장의 서술어가 나타

24) 박진호,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원, 1998, 141쪽.

25) 전정예(1991)에서는 동명사형어미(-ㄴ, -ㄴᄃ, -ㄴ) 앞에서 규칙적으로 ‘-오-’가 선접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선어말어미 ‘-오/우-’가 명사화 내포문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26)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1998, 226쪽.

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명사화 어미 ‘-기’의 쓰임이 점차 증가하면서 명사화 어미 ‘-(으)ㄴ’이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제약되는 현상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으)ㄴ’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은아(2002)에서는 16세기부터 ‘-기’의 쓰임이 확대된 원인 중 하나는 조사를 자유롭게 생략하는 현상에 있다고 보았다.²⁷⁾

17세기부터는 명사화 어미 ‘-기’의 사용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 명사화 구성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으)ㄴ’ 명사화 구성은 더욱더 축소되었다. 18세기 이후로는 ‘-기’의 분포가 더욱 넓어졌으며 20세기 초기인 개화기 국어에서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기’ 명사화 구성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기’ 명사화 구성은 점차 ‘-(으)ㄴ’ 명사화 구성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17세기부터는 16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ㄴ/ㄴ 것’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²⁸⁾ ‘-ㄴ/ㄴ 것’ 구조는 관형절에 ‘것’이 결합한 형태로 명사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 17세기에는 ‘-ㄴ 것’ 구조가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17세기의 ‘-ㄴ/ㄴ 것’ 구조는 통어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구조와 통어론적 구성이지만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구조로 나타난다.²⁹⁾ 통어론적 구성이지만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구조는 ‘-ㄴ/ㄴ 것’이 명사화의 기능을 하는 구조이다.

(55) ㄱ. 소위 한인관리라는 것이 모다 아모 능력과 아모 스상이 업서서 (논설 1910.4.20. 842호)

ㄴ. 일본이 빗을 낼 적마다 점점 더 어려울 것이오 (논설1905.2.28. 2권 44호)

(55)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ㄴ 것’ 구조이다. (55ㄱ)은 ‘-ㄴ 것’ 구조이며, (55ㄴ)은 ‘-ㄴ 것’ 구조이다. 이러한 ‘-ㄴ/ㄴ 것’ 구조는 18세기 이후로 조금

27)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씨끝 ‘-ㄴ, -기’의 변화 양상』, 『한말연구』10, 한말연구학회, 2002, 95쪽.
 28) 최대회(2014)에 따르면 ‘-오-’가 소멸하고 ‘-(으)ㄴ’ 명사화 구성이 축소하게 되면서 ‘-ㄴ/ㄴ 것’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29) 최대회,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29쪽.

씩 보이다가 점차 그 분포를 확대해 20세기 이후로는 빈번하게 나타난다.³⁰⁾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어미의 분포 양상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명사화 어미의 분포 양상³¹⁾

연도	명사화 어미	‘-(으)ㄴ’	‘-기’
1904 (8월4일 ~ 12월31일)		629	320
1905 (1월2월 ~ 3월9일)		127	134
1907 (5월23일 ~ 12월31일)		476	314
1908 (1월1일 ~ 12월31일)		1,823	866
1909 (1월1일 ~ 12월30일)		1,257	777
1910 (1월1일 ~ 8월28일)		956	680
합 계		5,268	3,091

위의 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어미의 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기재된 모든 글을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표 자체만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연도마다 ‘-(으)ㄴ’과 ‘기’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일반적인 변화 양상에 따르면 20세기 초기는 ‘-기’의 분포가 ‘-(으)ㄴ’의 분포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야 하지만, <표 1>에서는 여전히 ‘-(으)ㄴ’의 분포가 ‘-기’의 분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30) 최대회(2010)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ㄴ’은 현실법이나 완결법을, ‘-르’는 미정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31) 한글 프로그램의 찾기 기능을 통해 1906년을 제외한 논설 883개, 기사 151개, 별보 106개, 사설 3개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분포를 수작업으로 파악했지만 다소 오차가 있음을 밝힌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은 문장성분별로도 분포 차이가 있다.

<표 2> 명사화 어미의 문장성분별 분포 양상³²⁾

문장성분 연도	‘-(으)ㄴ’			‘-기’		
	주어	목적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1904	204	122	195	61	38	190
1905	36	33	17	38	35	52
1907	160	102	120	55	138	134
1908	711	447	302	212	280	295
1909	500	211	189	165	250	311
1910	400	198	194	188	227	192
합 계	2,011	1,113	1,017	719	968	1,174

<표2>는 명사화 어미의 문장성분별 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으)ㄴ’ 명사화 구성은 주로 주어와 목적어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 명사화 구성은 주로 목적어와 부사어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다.³³⁾

개화기 이후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화 어미 ‘-기’와 ‘-ㄴ/ㄹ 것’ 구조는 더욱 증가하였고, 명사화 어미 ‘-(으)ㄴ’은 대부분 문어체로만 쓰일 만큼 축소되었다. 서은

32) 앞서 살펴본 명사화 구성의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분포만을 살펴보았고 그 외로 기능하는 경우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표 1>에는 그 외의 기능까지의 분포도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분포 양상 파악은 한글 프로그램의 찾기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수작업으로 분포를 파악하였으나 다소 오차가 있음을 밝힌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아닌 그 외의 기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ㄱ. 타국에 더하야 외교상 평등권을 확실히 흡이라 (논설1905.1.9. 2권 4호)

ㄴ. 더회는 일은 실노 충신을 위흡이 아니라 (논설1909.11.23. 724호)

ㄷ. 도려혀 강력을 더 흥기라도 흥였스니 (논설1905.2.22. 2권 39호)

ㄱ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이다’가 결합하여 ‘-(으)ㄴ’ 명사화 구성이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고, ㄴ은 보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보어는 보충어라고도 하며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나 ‘가’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문장성분이다. ㄷ은 ‘-기’ 명사화 구성이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33) ‘-(으)ㄴ’ 명사화 구성이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2002)에 따르면 현대국어까지 나타난 명사화 어미는 ‘-ㅁ>-음, -ㅁ>-ㅁ/-기>-음, -ㅁ>-ㅁ/-기>-기’³⁴⁾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고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명사화 어미가 가지는 제약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구성은 격조사 및 보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으로의 기능을 한다. 이때 ‘-기’ 명사화 구성에 결합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생략되어도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ㅁ’과 ‘-기’는 상위문장의 서술어에 따라 제약되며, 시제어미와의 결합에서도 제약이 있다. ‘알다’, ‘보다’등의 지각동사와 ‘전하다’와 같은 전달의 뜻을 지닌 동사는 명사화 어미 ‘-(으)ㅁ’만을 허용하고, ‘쉽다’, ‘기다리다’, ‘마련이다’등의 서술어는 명사화 어미 ‘-기’만을 허용한다. 그리고 ‘좋다’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 ‘원하다’, ‘바라다’와 같은 요구의 의미를 지닌 동사,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는 명사화 어미 모두를 허용하는 서술어이다.

명사화 어미와 시제어미와의 결합은 크게 제약이 없으나 명사화 어미와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ㅁ’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이 결합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으며, 이는 명사화 어미 ‘-기’도 마찬가지이었다.

명사화 어미에 나타나는 높임법에서도 제약이 있다. 명사화 어미 ‘-(으)ㅁ’에 나타나는 높임법으로는 주체높임법으로 어미 ‘-시-’하고만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실현된다. 명사화 어미 ‘-기’에 나타나는 높임법으로는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있으며, 어미 ‘-시-’와 ‘-읍-’에 의해 실현된다.

명사화 구성의 변화는 주로 명사화 어미 ‘-(으)ㅁ’과 ‘-기’의 분포가 변화하면서 나타났다. 15세기의 ‘-(으)ㅁ’은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기’는 명사화 어미로의 기능보다는 파생접미사로의 기능을 하였다. 또 다른 명사화 어미인 ‘디’는 그 쓰임이 드물었다. 따라서 15세기는 명사화 어미 ‘-(으)

34) 서은아, 앞의 논문, 110쪽.

ㅁ'이 관여한 '-(으)ㅁ' 명사화 구성이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기'가 명사화 어미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으)ㅁ' 명사화 구성은 축소되고, '-기' 명사화 구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이후로는 '-기' 명사화 구성이 더욱더 활발하게 쓰이고, '-(으)ㅁ'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이 섞여 쓰이기 시작했으며, 16세기까지 볼 수 없었던 '-ㄴ/르 것' 구조가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기 국어에서도 역시 '-(으)ㅁ' 명사화 구성이 많이 축소되고, '-기' 명사화 구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의 분포 양상을 확인해보면, '-(으)ㅁ'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보다 여전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IV.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

관형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의 하위 유형으로 관형절과 명사(구)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를 관형화 어미라 하는데, 관형화 어미에는 ‘-ㄴ’과 ‘-르’이 있다.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는 구성을 ‘-ㄴ’ 관형화 구성, 관형화 어미 ‘-르’이 관여하는 구성을 ‘-르’ 관형화 구성이라 한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관형절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때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내포문 명사 혹은 머리명사라고 하며, 내포문 명사에는 자립명사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도 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분석했던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여러 제약들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제약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확인해 볼 것이다.

1. ‘-ㄴ’ 관형화 구성

‘-ㄴ’ 관형화 구성은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는 구성이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관형화 구성을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ㄴ’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도 살펴본다.

1) 자립명사 구문

여기서는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관계화 구성과 ‘-ㄴ’ 보문화 구성을 살펴본다.

(1) ‘-ㄴ’ 관계화 구성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관계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의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화 구성은 또다시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관계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의 주어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이다.

(56) 본신보를 의독하시느 한국동포들이 무단히 의심을 품고 (논설1908.5.10. 278호)

→ [(한국동포들은) 본신보를 의독하시느] 한국동포들이 무단히 의심을 품고

(56)은 주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으로, 관형절 안에서 ‘한국동포들’이라는 주어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주어와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57) 일인이 아무리 땡렬흔 공격을 흐드리도 (논설1904.8.4. 16호)

농스흔느 시골들에서느 추성렴시를 당흐면 (논설1904.8.16. 26호)

지나간 목요일에 일진회에서 기회흐엿다가 (논설1905.1.2. 138호)

아모 한인이라도 그 계책을 반디흐느 자는 단단히 히보랴홀지라 (논설 1905.3.3. 47호)

세계각국의 유신스업을 세운 인물들은 다 정직흐고 (기서1907.10.16. 116호)

(57)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주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57)의 ‘공격’, ‘시골들’, ‘목요일’, ‘자’, ‘인물들’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기능하다가 빠

져나간 내포문 명사이다.

다음은 목적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의 목적어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이다.

(58) 시스신보에 그지훈 전문이 여좌하기로 등지하니 (논설1904.8.18. 28호)

→ [시스신보에 (전문을) 그지훈] 전문이 여좌하기로 등지하니

(58)은 목적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전문’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이때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안의 목적어라는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

(59) 일본이 전혀는 소문이 정밀하나 (논설1905.2.13. 2권32호)

귀사에서 권장하고 먼려하시는 열성에 대하야 (기서1907.5.23. 1호)

대대 회의석에서 데줄흔 안건은 열국 위원들이 묻져 열독 혼 후에 데줄
흔여야 (논설1907.7.5. 32호)

(59)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목적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59)의 ‘소문’, ‘닐’, ‘열성’, ‘안건’은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가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의 부사어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이다.

(60) 수십명의 청년이 모힌 곳을 불진디 (논설1910.1.18. 768호)

→ [수십명의 청년이 (곳에) 모힌] 곳을 불진디

(60)은 부사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으로 관형절 안에서 ‘곳’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이때 역시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부사어라는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

(61) 아병의 잇는 곳까지 쏘차갈 터이니 (논설1904.9.15. 52호)

십으논 곳마다 번성흐도다 (별보1907.7.30. 53호)

또 오는 사람의 안논 자리를 정결케흐논디 (논설1909.7.1. 612호)

(61)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부사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61)의 ‘곳’, ‘자리’, ‘마을’은 관형절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가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관계화 구성이란 관형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며, 이때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ㄴ’ 보문화 구성

보문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별개의 명사가 결합하는 관형화 구성으로 이때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며,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62) 일본군더가 압록강을 짓는 이후로 횡동흙이 자못 지완하게 흐는 고로 (논설1904.10.3. 66호)

→ [일본군더가 압록강을 짓다 + ‘-ㄴ’] 이후로

(62)의 관형절은 ‘일본군더가 압록강을 짓다’라는 완전한 문장으로 필요문장성분이 모두 갖춰진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형절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사인 ‘이후’가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ㄴ’ 보문화 구성이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서 나타난 ‘-ㄴ’ 보문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63) 외국에 디표자를 보너논 주의논 독립국을 표함시오 (논설1905.1.9. 2권4호)

싱스를 알지 못흐논 일이 종종 잇스니 (논설1907.10.13. 114호)

불놀이 구경속에 다른 볼뵈는 생각이 나는고나 (별보1907.10.15. 115호)
 세계는 영웅을 숭배하는 제단이라 하니라 (논설1908.1.5. 178호)
죽식을 사랑하는 턴성을 능히 억제치 못함이니라 (논설1908.7.21. 338호)
 류학성도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포를 사랑하고 (논설
 1910.1.8.760호)

(63)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보문화 구성이다. ‘-ㄴ’ 보문화 구성의 관형절은 문장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며,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의존명사 구문

내포문 명사는 자립명사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도 올 수 있다.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관계화 구성과 ‘-ㄴ’ 보문화 구성을 살펴본다.

(1) ‘-ㄴ’ 관계화 구성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ㄴ’ 관계화 구성 역시 주어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주어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64) ㄱ. 물에 써잇는것도 잇는니라 (별보1907.10.11. 112호)

나의 죽고 나의 사난거시 나에게 잇지아니호고 (논설1907.12.25. 172호)

동포의 죽고사난거시 이호번 싸흠에 잇는니 (논설1910.4.28. 849호)

ㄴ. 죄업는 이가 큰 해를 맞으며 (별보1907.9.1. 80호)

국문신보 보시는 이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야 (기서1907.9.17. 92호)

신문을 보는 이는 우리의 이 뜻을 숭힐지어다 (논설1910.3.24. 821호)

(64)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다. (64ㄱ)은 의존명사 ‘것’이 관형절 안의 주어로 있다가 빠져나간 구성이고, (64ㄴ)은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있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로 자리한 ‘-ㄴ’ 관계화 구성이다.

다음은 목적어가 빠져나간 ‘-ㄴ’ 관계화 구성이다.

(65) ㄱ. 저희연구한거슬 대한궁정에 보고하였는디 (논설1904.8.4. 16호)

일본에서 주의하는거슨 세계에서 다쟈이 아는비라 (논설1904.8.9. 20호)

하느님이 피워하시논거슬 즐겨하리오 (논설1907.12.6. 156호)

ㄴ. 일본은 영국의 원한 바를 반디하야 (논설1904.10.6. 69호)

더희 저술한 바를 참고하여 (논설1909.1.9. 472호)

우리가 더욱 치하는 바가 잇스니 (논설1910.4.16. 839호)

(65)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다. (65ㄱ)은 의존명사 ‘것’이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된 ‘-ㄴ’ 관계화 구성이고, (65ㄴ)은 의존명사 ‘바’가 관형절 안의 목적어로 기능하다가 내포문 명사로 자리한 ‘-ㄴ’ 관계화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빠진 ‘-ㄴ’ 관계화 구성이다.

(66) 학교는 만뭇을 벗기는 더니 (별보1907.10.17. 117호)

감스회를 하는 데 더하야 (논설1909.9.23. 681호)

우논 소리가 짐짐에 아니 들니는 더가 업논고로 (논설1910.1.25. 774호)

(66)은 의존명사 ‘딤’가 내포문 명사로 쓰인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이다. 의존명사 ‘딤’는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데’의 옛 모습이며, 그 뜻은 장소나 곳, 경우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2) ‘-ㄴ’ 보문화 구성

다음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의 ‘-ㄴ’ 보문화 구성이다.

(67) 류혈이 량자흔 지경에 이름이여 좌흐니 (논설1905.1.2. 138호)

→ [류혈이 량자흐다 + ‘-ㄴ’] 지경에 이름이이여 좌흐니

(67)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의 보문화 구성으로, 관형절인 ‘류혈이 량자흔’은 주어와 서술어 모두 갖춰진 문장이며, 여기에 별개의 명사인 ‘지경’이 내포문 명사로 결합하였다. 따라서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보문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68) 일본사람이 아함에 오른거슬 용납지 아니호고 (논설1904.8.30. 38호)

우리나라 부인동포는 교혹을 맞은 거시 업고 (기서1907.7.9. 35호)

다만 일본 정척이 한국을 썩앗스려 흐는 것을 우리가 대강 말호오니 (논설1907.9.5. 82호)

강국의 세력을 억제 흐는 거슨 빅만 정병보다 오히려 우승호온지라 (기서1908.1.7. 179호)

(68)은 의존명사 ‘것’이 내포문 명사로 쓰인 보문화 구성으로 이때의 관형절은 어떠한 성분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며, 별개의 명사인 의존명사 ‘것’을 꾸며주고 있다.

(69) 만일 아병이 득승하야 압록강만 관할하느 지경이면 (논설1904.12.16. 126호)

일병이 아병보다 곤란하 지경을 여러 번 당하엿스되 (논설1904.10.12. 74호)

(69)는 의존명사 ‘지경’이 내포문 명사인 보문화 구성이다. ‘지경’은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지니며 관형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이다. 이때의 관형절 역시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70) 청국과 로국은 일인이 그 쌍을 엿보느 줄노 알고 (논설1907.9.21. 96호)

폭동의 형세가 더하 줄노 본인은 아는바이오 (별보1908.7.1. 321호)

그런고로 민족의 흥망성회가 개인에게 관계가 업난 줄노 생각하느니 (논설 1909.11.21. 723호)

(70)은 의존명사 ‘줄’이 내포문 명사인 ‘-ㄴ’ 보문화 구성이다. 의존명사 ‘줄’은 어떠한 방법 따위를 뜻하며 (70)에서처럼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관형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로 자리하고 있다.

3) ‘-ㄴ’ 관형화 구성의 제약

‘-ㄴ’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관형화 어미 ‘-ㄴ’과 관련이 있다. 그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의 결합 제약, 높임법 제약 결합,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이 있다.

(1) 시제어미 결합 제약

‘-ㄴ’은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현실법과 완결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형화 어미 ‘-(으)ㄴ’은 현실법의 시제어미 ‘-∅-’,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는 결합이 허용되나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은 제약되고, 관형화 어미 ‘-는’은 현실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은 허용되나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관형화 어미 ‘-ㄴ’에 시제어미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71) ㄱ. 문학가를 숭비호는 자는 문학가가 되며 (논설1909.6.15. 599호)
 근일에 각 서적 저술호는 사림들이 교과서를 저술호여 (논설1910.1.11. 762호)
- ㄴ. 외국 사림들이 기근치 못호 쌓은 기근호고 (별보1907.11.5. 131호)
 그리고로 외국인이 홍포호 일을 호여도 (논설1909.6.13. 598호)
- ㄷ. 일본이 항의호던 것은 업슬지라 (논설1905.1.7. 2권3호)
 견훤을 띄워호던 놈은 노를 전라 일도에 움겨 (논설1908.7.19. 337호)
 국가에 몸을 맞치던 정신도 호호 ㄱ장 컷도다 (논설1909.8.7. 644호)

(71)은 관형화 어미 ‘-ㄴ’에 시제어미가 나타난 경우로, (71ㄱ)은 관형화 어미 ‘-는’에 현실법의 시제어미 ‘-∅-’가 나타난 ‘-ㄴ’ 관형화 구성이며, (71ㄴ)은 관형화 어미 ‘-(으)ㄴ’에 현실법의 시제어미 ‘-∅-’가 나타났으며, (71ㄷ)은 관형화 어미 ‘-(으)ㄴ’에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가 나타난 ‘-ㄴ’ 관형화 구성이다.

(2) 높임법 결합 제약

<대한매일신보>에서 관형화 어미 ‘-ㄴ’에 나타날 수 있는 높임법은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다. ‘-ㄴ’ 관형화 구성과 높임법의 결합은 크게 제약이 없어 자유로이 결합할 수 있다. 주체높임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어미 ‘-시-’가 결합하는 것이며,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어미 ‘-옵-’이 관형화 어미 ‘-ㄴ’에 결합하는 것이다.

- (72) ㄱ. 대화테페하의 전제정치호시는 권리가 점점 업서지며 (논설1904.9.10. 48호)

또 예수그독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영광을 버리시고 (별보 1907.10.18. 118호)

각하피셔 하는님의 은익하시^는 뜻을 밧들고 (기서1908.1.7. 179호)

신문 보시는 제군즈는 즈미롭게 보시리로다 (논설1909.4.15. 548호)

ㄴ. 련합교보(聯合敎報)를 발간^하기로 발기하^옵는바 (별보1907.10.26. 124호)

(72)는 <대한매일신보>에서 관형화 어미 ‘-ㄴ’에 높임법이 나타난 경우로, (72ㄱ)은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실현하고, (72ㄴ)은 어미 ‘-옵-’이 결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3)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

관형화 어미 ‘-ㄴ’은 내포문 명사에 따라 제약된다. 내포문 명사에 따른 관형화 어미 ‘-ㄴ’의 제약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와 자립명사일 때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ㄴ’의 제약이다. 여기서는 관형화 어미 ‘-ㄴ’을 ‘-(으)ㄴ’과 ‘-는’으로 세분화하여 그 제약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의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73) ㄱ. 혹 장대^하 나라의 설권^하므로도 하는 수가 또 하는 잇는지라 (논설 1904.12.13. 123호)

쌍은 두려세^는 수가 잇다^하지라도 (논설1910.3.6. 806호)

ㄴ. 방축^하는 심장^정과 특별^감슈로 인민을 쳐치^하는 등 스는 본인이 명^백히 알지 못^하는고로 (별보1908.7.14. 332호)

(73)은 의존명사 ‘수’와 ‘등’이 내포문 명사인 경우로, 관형화 어미 ‘-는’만을 허용하는 내포문 명사다. (73ㄱ)의 의존명사 ‘수’는 ‘경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이때의 ‘수’는 관형화 어미 ‘-는’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으)ㄴ’를 제약한다. (73ㄴ)의 의존명사 ‘등’ 역시 관형화 어미 ‘-는’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으)ㄴ’를 제약한다.

(74) 구라과의 형위가 대단히 올치 아니 하 양으로 말흐엿스나 (논설1904.12.10. 121호)

들니는 소리는 도모지 업는 양으로 흐엿는지라 (논설1904.12.26. 134호)

(74)는 의존명사 ‘양’이 내포문 명사로 쓰인 ‘-ㄴ’ 관형화 구성으로,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을 모두 허용하는 내포문 명사이다. 이때의 의존명사 ‘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취함을 나타내는 뜻이며,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 모두를 허용한다. 그러나 의존명사 ‘양’이 모양이나 행동의 뜻이 아닌 ‘의도’를 뜻한다면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75) ㄱ. 공이 싱전에는 그 지산을 쇼비 홀 뿐이오 (논설1909.5.22. 579호)

빋난 명예가 손상 될 리가 만무흐되 (논설1904.11.5.)

ㄴ. * 공이 싱전에는 그 지산을 쇼비 하 뿐이오

* 빋난 명예가 손상 된 리가 만무흐되

(75)는 의존명사 ‘리’와 ‘뿐’이 내포문 명사로 있는 관형화 구성으로,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 모두를 제약하는 내포문 명사이다. 이들은 (75ㄱ)처럼 관형화 어미 ‘-ㄴ’만을 허용하며, (75ㄴ)처럼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ㄴ’의 제약이다. 대다수의 명사가 관형화 어미 ‘-ㄴ’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으나 명사 ‘필요’는 관형화 어미 ‘-ㄴ’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 모두를 제약한다.

(76) ㄱ. 매일신보는 종리로 어업흐덜자는 청원 홀 필요가 업다고 말흐엿다 (논설1909.5.1. 562호)

ㄱ. * 매일신보는 종리로 어업허탈자는 청원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76)은 자립명사 ‘필요’가 내포문 명사인 ‘-ㄴ’ 관형화 구성으로, 자립명사 ‘필요’는 관형화 어미 ‘-ㄴ’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75ㄱ)처럼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이와 반대로 관형화 어미 ‘-ㄴ’만을 허용하는 자립명사는 다음과 같다.

(77) ㄱ. 외국과 통상 이후에는 장스의 업에 리익을 숨기지 못하야 (별보 1907.11.5. 131호)

타국과 교통 이후에 도흔 거슨 본받지 못하코 (논설1910.1.28. 777호)

ㄴ. 어제밤 비온 뒤에 바름은 불고 (논설190712.12. 161호)

토끼를 다 잡은 뒤에는 산영사개도 잡아먹을 거시어늘 (논설 1909.11.30. 730호)

(77)은 자립명사 ‘이후’, ‘뒤’가 쓰인 ‘-ㄴ’ 관형화 구성으로. ‘이후’, ‘뒤’는 관형화 어미 ‘-ㄴ’만을 허용하는 자립명사이다.

2. ‘-ㄴ’ 관형화 구성

‘-ㄴ’ 관형화 구성은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관형화 구성이다.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관형화 구성을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ㄴ’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도 살펴본다.

1) 자립명사 구문

여기서는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ㄴ’ 관계

화 구성과 ‘-ㄹ’ 보문화 구성을 살펴본다.

(1) ‘-ㄹ’ 관계화 구성

‘-ㄹ’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떤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주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이다.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의 주어가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이다.

(78) 또 능히 방비치 못홀 빅성들을 억제로 잡아두어 (논설1904.8.23. 32호)

→[(빅성들이) 방비치 못하다+-ㄹ]빅성들을

(78)은 주어가 빠져나온 ‘-ㄹ’ 관계화 구성으로, ‘빅성들’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기능하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이때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주어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79) 요전에 우리의 지금 흐는 말에 징거될 일이 잇스니 (논설1905.2.25. 2권42호)

그 나라에 세계와 교섭홀 영웅이 잇셔야 (논설1908.1.7. 179호)

국가를 홍복홀 괴운이 이째에 발싱 흐는도다 (기서1908.1.9. 181호)

(79)는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주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이다. (79)의 ‘일’, ‘영웅’, ‘괴운’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기능하다가 빠져나온 내포문 명사이다.

다음은 목적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이다.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의 목적어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이다.

(80) 이법 쓰는 거시 엇지 성취홀 기회를 싱각 흐야 (논설1904.8.23. 32호)

→[(기회를) 성취하다+-ㄹ]기회를

(80)은 목적어가 빠져나온 ‘-ㄹ’ 관계화 구성으로, 내포문 명사인 ‘기회’는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다가 빠져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역시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안의 목적어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

(81) 추후 운농은 믹우 김희 싱각홀 일리오 (논설1904.8.11. 22호)

지금부터는 한인들이 일치 통일홀 싱각이 점점 성하야 (논설1910.1.7. 759호)

(81)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목적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이다. (81)의 ‘일’, ‘싱각’은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이다.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의 부사어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이다.

(82) 거쳐홀 곳이 잇스니 (별보1908.1.11. 183호)

→[(곳에) 거쳐하다+-ㄹ] 곳이 잇스니

(82)는 부사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으로 내포문 명사인 ‘곳’이 원래 관형절 안의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이때 내포문 명사 역시 관형절 안의 부사어라는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

(83) 증박홀 곳이 정령 업슬지라 (논설1904.11.21. 105호)

도라갈 집이 업서서 (논설1908.8.29. 370호)

턴디가 비록 넓으나 의탁홀 곳이 업스니 (논설1908.8.29. 370호)

(83)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부사어가 빠져나간 ‘-ㄹ’ 관계화 구성이다. (83)의 ‘곳’, ‘집’이 관형절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

사가 된 ‘-르’ 관계화 구성이다.

따라서 ‘-르’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고,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르’ 보문화 구성

‘-르’ 보문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별개의 명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보문화 구성의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며,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84) 이로 말미암아 한인이 일본을 숭비홀 리치가 업스며 (논설1910.1.7. 759호)
→ [한인이 일본을 숭비호다 + ‘-르’] 리치가 업스며

(84)는 ‘-르’ 보문화 구성이다. 관형절인 ‘한인이 일본을 숭비홀’은 어떠한 성분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별개의 명사인 ‘리치가 내포문 명사로 결합하였다. 따라서 내포문 명사 ‘리치’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85) 엇지던지 일한량국 간 교제 친밀홀 기회도 엇엇고 (논설1904.9.5. 43호)
일진 대병이 지나갈 때에 걱정도 식이지 안코 (논설1904.12.19. 128호)
대산원슈가 공격호는 형세를 취홀 리류가 혼가지 잇스니 (논설1905.1.28. 2권21호)
장리의 독립을 회복홀 기초가 된지라 (논설1907.7.5. 32호)
빅성을 보전홀 사상이 잇느냐 업느냐 (기서1908.1.4. 177호)
이로 말미암아 한인이 일본을 숭비홀 리치가 업스며 (논설1910.1.7. 759호)

(85)는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르’ 보문화 구성이다. 따라서 보문화 구성의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며,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존명사 구문

여기서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르’ 관계화 구성과 ‘-르’ 보문화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1) ‘-르’ 관계화 구성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르’ 관계화 구성 역시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주어가 빠져나간 ‘-르’ 관계화 구성이다.

(86) ㄱ. 크게는 다를 거시 업는지라 (논설1904.12.12. 122호)

흔히에 죽지 아니하면 십년에 죽을 거시며 (별보1908.9.16. 383호)

그 나라의 부강홀 것은 또한 말을 아니하여도 (논설1910.8.27. 937호)

ㄴ. 이러케 무심홀 데가 잇스리오 (기서1907.12.29. 174호)

(86)은 의존명사 ‘것’과 ‘데’가 내포문 명사인 ‘-르’ 관계화 구성으로, (86ㄱ)은 의존명사 ‘것’이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있다가 빠져나간 ‘-르’ 관계화 구성이고, (86ㄴ)은 의존명사 ‘데’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있다가 빠져나간 ‘-르’ 관계화 구성이다. 의존명사 ‘데’는 장소나 곳, 일이나 경우 등을 뜻한다.

다음은, 목적어가 빠져나간 ‘-르’ 관계화 구성이다.

(87) ㄱ. 우리는 확실히 증거홀 거슨 업스되 (논설1904.9.3. 42호)

(→이 것을 증거홀→)

그러하나 우리의게는 실로 경접홀 것도 업스며 (논설1904.12.30. 136호)

ㄴ.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능히 못홀바가 업다호고 (기서1908.3.20. 236호)

스립하교를 설립호는 차는 주의홀바 | 러니 (논설1908.9.8. 378호)

이거시 엇지 가히 두려워홀바가 아닌가 (논설1910.4.15. 838호)

(87)은 의존명사 ‘것’과 ‘바’가 내포문 명사인 ‘-르’ 관계화 구성으로, (87ㄱ)은 의존명사 ‘것’이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다가 빠져나온 ‘-르’ 관계화 구성이고, (87ㄴ)은 의존명사 ‘바’가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다가 빠져나온 ‘-르’ 관계화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빠져나온 ‘-르’ 관계화 구성이다.

(88) 신상의 광요흙이 비홀디 업슨지라 (논설1904.10.22. 83호)

허탕호고 물사흙이 비홀 디 업거늘 (논설1904.11.19. 104호)

엇어 드를 디도 업스며 (논설1909.4.22. 554호)

(88)은 의존명사 ‘디’가 내포문 명사인 ‘-르’ 관계화 구성으로, ‘디’가 관형절 안에서 부사어로 있다가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었다. 의존명사 ‘디’는 현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 ‘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계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하는데, 이때 내포문 명사는 자립명사이든 의존명사이든 상관없이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2) ‘-르’ 보문화 구성

다음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르’ 보문화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89) 빚난 명예가 손상될 리가 만무호되 (논설1904.9.17. 54호)

→ [빚난 명예가 손상되다 + ‘-르’] 리가 만무호되

(89)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인 ‘-리’ 보문화 구성이다. 보문화 구성의 관형절인 ‘빚난 명예가 손상될’은 완전한 문장이며, 여기에 별개의 명사인 ‘리’가 내포문 명사로 결합하였다.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 ‘리’는 관형절 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리’ 보문화 구성은 다음과 같다.

(90) 그 계획이 잘되지 못할것은 본인도 일테로 생각호노라 (논설1907.7.12. 38호)

송씨가 말을 못할 거슨 명백호도다 (논설1909.3.7. 518호)

그 국세가 빈핍할 것은 말을 아니호여도 (논설1910.8.27. 937호)

(90)은 의존명사 ‘것’이 내포문 명사일 때 ‘-리’ 보문화 구성이다. 이때의 관형절은 어떠한 성분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며, 내포문 명사인 의존명사 ‘것’을 꾸며주고 있다.

(91) 다만 저희가 승첩할 줄노만 밋는지라 (논설1904.8.11. 22호)

오히려 죄를 당호지 아니 할 줄을 알고 (논설1904.12.19. 128호)

외국을 방어할줄을 알며 (논설1910.8.28. 938호)

(91)은 의존명사 ‘줄’이 내포문 명사인 ‘-리’ 보문화 구성이다. 의존명사 ‘줄’은 어떠한 방법 따위를 뜻하며,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로 자리하고 있다.

(92) 한국을 일본에게 하여할 리가 업고 (논설1904.9.17. 54호)

일본은 확실히 전쟁을 정호지호기를 청호리 업고 (논설1905.2.22. 2권39호)

(92)는 의존명사 ‘리’가 내포문 명사인 ‘-리’ 보문화 구성이다. 의존명사 ‘리’는 ‘까닭’이나 ‘이치’를 뜻하며, 여기서 완전한 문장인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문화 구성의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며,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때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자립명사이든 의존명사이든 상관없이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3) ‘-르’ 관형화 구성의 제약

‘-르’ 관형화 구성이 가지는 제약은 관형화 어미 ‘-르’과 관련이 있다. 그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이 있다.

(1) 시제어미 결합 제약

‘-르’은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의 기능뿐만 아니라 미정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형화 어미 ‘-르’은 현실법의 시제어미 ‘-∅-’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의 결합은 자유로우나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제약된다.

(93) ㄱ. 부자의 량년미답도 거연히 잠풀이 황량홀 쟈가 잇스니 (논설1908.8.23. 366호)

ㄴ. 금년 가을에 성피득보에서 디방회의를 열엇슬 쟈에 테국행정상에 필요한 기량안의 여러 도목을 제출호야 (논설1905.2.1. 2권24호)

필경 피호여 가는 군스들의게 그 런로촌려에서 폭화를 당호엿슬 듯호도다 (논설1909.9.13. 50호)

(93)은 관형화 어미 ‘-르’에 현실법의 시제어미와 완결법의 시제어미가 나타난 경우이다. (93ㄱ)은 관형화 어미 ‘-르’에 현실법의 시제어미 ‘-∅-’가 나타나는 구성이고, (93ㄴ)은 관형화 어미 ‘-르’에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이 나타나는

구성이다.

(2) 높임법 결합 제약

<대한매일신보>에서 관형화 어미 ‘-르’에 나타나는 높임법은 주체높임법만이다.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어미 ‘-르’에는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 모두 나타났지만 관형화 어미 ‘-르’은 어미 ‘-시-’와만 결합하고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어미인 ‘-옵-’과의 결합이 제약된다.

(94) 그러나 일본에 류학하실 기한은 팔년이나 (논설1907.12.8. 158호)

군더를 희산하라신 조칙은 징병을 시행하실 계책이시니 (별보1907.11.26. 148호)

도를 형하실 막음을 조금도 게으르게 아니하시고 (논설1908.1.15. 186호)

하느님께서 필연 망국민 매국적으로 죄를 더하실 터이니 (논설1909.2.23. 507호)

하늘이 인성을 내일하실 때에 귀천과 강약을 분별하여 (논설1910.6.24. 894호)

(94)는 관형화 어미 ‘-르’에 주체높임이 나타난 경우로, 관형화 어미 ‘-르’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3)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라 관형화 어미 ‘-르’은 제약된다. 여기서는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와 자립명사일 때로 구분하여 그 제약을 살펴본다.

먼저,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르’의 제약이다.

(95) ㄱ. 약초히 위험한 일을 홀 리가 만무하거늘 (논설1904.12.21. 130호)

성질을 변경하 리가 잇스리오 (기서1910.7.10. 908호)

- ㄴ. 그 나라이 부강하기를 기망할 수가 업는지라 (기서1907.7.9.35호)
 그 스상이 완고히거니 엇지 교육을 확장할 수 잇스며 (논설1910.3.23. 820호)
- ㄷ.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다시 건축할 양으로 파괴하기를 바라노라 (논설 1908.2.16. 209호)

(95)는 내포문 명사로 의존명사 ‘리’, ‘수’, ‘양’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는 내포문 명사이다. (95ㄴ)의 의존명사 ‘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가능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의존명사 ‘수’는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지만, 의존명사 ‘수’가 ‘능력’이나 ‘가능성’의 뜻이 아닌 ‘경우’의 뜻을 지니고 있으면,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고 관형화 어미 ‘-는’을 허용한다. (95ㄷ)의 의존명사 ‘양’ 역시 ‘의향이나 의도의 뜻’을 지니고 있을 때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지만, 모양이나 행동을 뜻하는 의존명사 ‘양’은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고 관형화 어미 ‘-는’을 허용한다.

- (96) 이것은 관보를 열람하는 자로 하야곰 정신만 현황케 흘쓰름이며 (논설 1908.3.7. 226호)
 죠령 제신들은 속슈무척하고 눈물만 서로 흘닐쓰름이오 (기서1908.4.7. 251호)
 한일 량정부가 이나라 안에서 엇던 일에던지 처리하기에만 화합할 쓰름이오 (별보1908.6.28. 319호)

(96)은 내포문 명사로 의존명사 ‘쓰름’이 자리한 ‘-르’ 관형화 구성으로, 이때의 ‘쓰름’ 역시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는 내포문 명사이다.

다음은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르’의 제약이다. 내포문 명사에 따른 관형화 어미의 제약은 대부분 보문화 구성에서 생긴다.

- (97) 이로 인^하야 우리는 이 문테의 결^정되기를 독촉할 필요가 업는지라 (논설 1908.2.29. 220호)

국민에게 실업스상을 발달케 홀 필요로 실업학교령을 제정호어 (논설 1908.10.16. 407호)

일본은 아라스의 환정을 엇고져 홀 필요가 업는지라 (별보1910.5.22. 869호)

(97)은 자립명사 ‘필요’가 내포문 명사인 ‘-르’ 보문화 구성이다. 여기서 자립명사인 ‘필요’는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립명사는 관형화 어미 ‘-르’을 제약한다.

(98) ㄱ. 만일 하늘님이 세계를 창조 호신 이후에 영웅이 하나도 업섯스면 (논설 1908.1.5. 178호)

ㄱ'. * 만일 하늘님이 세계를 창조 하실 이후에 영웅이 하나도 업섯스면

(98)은 자립명사 ‘이후’가 내포문 명사인 관형화 구성이다. 자립명사 ‘이후’는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는 내포문 명사이며, (98ㄱ')와 같이 관형화 어미 ‘-르’을 제약한다. 이외에도 ‘뒤’, ‘이상’ 등의 자립명사가 관형화 어미 ‘-르’을 제약한다.

3.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

관형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하위유형으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내포문 구성이다.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를 관형화 어미라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관형화 어미는 ‘-르’과 ‘-르’이었다. 관형화 어미는 내포문 어미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제의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관형화 구성이 고대 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고대국어에서의 관형화 구성은 ‘-르’과 ‘-르’로 나타나며 박진호(1998)에 따르면 향가에서 ‘-이’에 의해 형성된 관형화 구성이 드물게 나타났다고 하였다.³⁵⁾

중세국어에서 관형화 구성은 고대국어와 비슷하게 ‘-ㄴ’과 ‘-ㄹ’이 관여하여 이루어진다.³⁶⁾ 중세국어에서 관형화 어미 ‘-ㄹ’은 ‘읻, 읍’³⁷⁾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15세기의 관형화 어미는 시제법 기능도 함께 나타나는데, ‘-(으)ㄴ’은 확정법을 나타내는 시제며, ‘-ㄴ’은 ‘-(으)ㄴ’과 현실법의 시제 ‘-ㄴ-’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현실법을 나타내고, ‘-ㄹ’은 미정법을 나타낸다. 관형화 어미가 내포문 어미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제법을 나타내는 것은 현대국어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의 관형화 구성은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관형화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주체·대상법이라 할 수 있겠다. 주체·대상법이란 어떤 문장이 관형화를 이룰 때,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에서 빠져나온 목적어인 경우에 관형화 어미 앞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고 관형절에서 빠져나온 부사어가 내포문 명사일 때도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한다. 그러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의 목적어가 아닌 주어인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99) ㄱ. 아기 나흔 겨집들홀 보고 (월인석보21:143)

ㄴ. 제 지순 罪며 (석보상절9:30)

(99)는 중세국어의 관형화 구성이다.³⁸⁾ (99ㄱ)은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지 않고, (99ㄴ)은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는 주체·대상법에 따라 (99ㄱ)은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안에서 주어로 역할을 하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지 않고, (99ㄴ)은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오/우-’가 결합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16세기에서는 1

35) 박진호, 앞의 논문, 145쪽.

36) 중세국어에서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내포문 어미는 ‘-ㄴ’과 ‘-ㄹ’이 대표적이거나 때로는 관형격 조사 ‘ㅅ’이 관여하기도 한다. (고영근,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2010, 368쪽)

37) 권재일, 앞의 책, 1998, 241쪽.

38)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자료를 참고하였다.

5세기보다 주체·대상법의 예외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16세기를 주체·대상법이 ‘본격적으로 허물어지는 과도기’³⁹⁾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관형화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관형절이 단독으로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15세기에서는 관형화 어미 ‘-읻’이 관여하는 관형절이 단독으로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관형절이 단독으로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16세기 이후로 곧바로 소멸하여 그 자취를 감췄다. 그 후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관형화 구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읻, 읻, ㄹ’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던 것이 ‘-ㄹ’로 통일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17세기부터는 주체·대상법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와 가까워진 모습을 보인다.⁴⁰⁾

(100) 간나히 가는 길흘 스나히 에도드시 스나히 네는 길흘 계집이 최도드시
(경민중⁴¹⁾:39)

(100)은 근대국어⁴²⁾의 관형화 구성이다. (100)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 안에서 부사어로 역할을 하다가 빠져나온 경우이다. 중세국어의 경우 목적어나 부사어가 빠져나오면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한다. 하지만 (100)은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이시기에 주체·대상법이 허물어져 그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7세기 이후의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17세기부터는 16세기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관형절에 ‘것’이 결합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구조는 관형절과 ‘것’이 더불어 명사화의 기능을 한다. 이는 앞서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에서 예문과 함께 살펴본 바 있다. 허원욱(2014)에서는 ‘형식적 매김마디’의 구조도 17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형식적 매김마디’라고 하는 것은 ‘관형절+것’구조가 하나의 풀이

39) 허원욱, 「16세기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3, 한말연구학회, 1997, 194쪽.

40) 허원욱(2005)에 따르면 17세기는 중세국어가 현대국어로 바뀌는 시작하는 단계라 하였다.

41) 경민편언해(1658)를 줄여 ‘경민중’이라 한다.

42) 근대국어는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를 말한다.

말로 쓰이는 경우로, 관형절이 ‘것’을 꾸미는 의미구조가 아니라 하였다.⁴³⁾

(101) ㄱ.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올 것이다.

(101)⁴⁴⁾은 현대국어에 나타난 ‘형식적 매김마디’의 예문이다. (101)처럼 하나의 풀이말로 쓰이면서 ‘해로운’, ‘올’이 ‘것’을 꾸미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구조는 허원욱(2014)에 따르면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부터 관형화 어미에 나타나는 높임법도 변화를 보인다. 15세기와 16세기 까지 보였던 객체높임이 17세기 이후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15세기와 16세기 에는 객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습/줍/습-’이 관형화 어미와 결합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나 17세기 이후로는 관형화 어미와 객체높임이 결합한 모습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18세기 이후로 주체·대상법의 선어말어미 ‘-오/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객체높임이 결합 모습도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이미 근대국어의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의 모습과 많이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대한매일신보>의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관형화 어미 ‘-ㄴ’과 ‘-ㄹ’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며, 관형화 어미는 내포문 어미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이전 시기 및 현대국어와 같다. 따라서 20세기 초기의 관형화 구성은 이미 현대국어의 관형화 구성 모습이라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을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 일 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형화 어미 ‘-ㄴ’과 ‘-ㄹ’이 가지는 제약도 살펴보았다. 또 추가적으로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빠져나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이

43) 허원욱,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35, 한말연구학회, 2014, 310쪽.

44) 표준국어대사전의 예문을 참고하였다.

때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관형화 구성은 또다시 주어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보문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별개의 명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이때의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며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관형화 어미가 가지는 제약으로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을 살펴보았다. 관형화 어미 ‘-(으)ㄴ’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제약되고, 관형화 어미 ‘-는’은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 결합이 제약되며, 관형화 어미 ‘-르’은 미정법, 완결법, 회상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또 관형화 어미 ‘-ㄴ’에는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 관형화 어미 ‘-르’에는 주체높임만 나타났다.

내포문 명사에 따라 관형화 어미는 제약된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으)ㄴ’을 제약하는 의존명사로는 ‘경우’를 나타내는 ‘수’, ‘등’이 있으며, 관형화 어미 ‘-는’을 제약하는 의존명사로는 ‘리’, ‘뿐’ 등이 있다.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는 의존명사로는 ‘경우’를 나타내는 ‘수’, ‘모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양’ 등이 있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관형화 어미 ‘-(으)ㄴ’과 ‘-는’ 모두를 제약하는 자립명사로는 ‘필요’가 있으며, 관형화 어미 ‘-르’를 제약하는 명사로는 ‘이후’, ‘뒤’, ‘이상’ 등이 있다.

관형화 어미는 이전 시기부터 ‘-ㄴ’과 ‘-르’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때도 시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관형화 구성의 두드러진 변화는 주체·대상법의 소멸이다. 주체·대상법은 16세기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며 17세기 이후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7세기부터는 16세기까지는 등장하지 않던 ‘관형절+것’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명사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하나의 풀이말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부터 관형화 구성의 모습은 점차 현대국어의 관형화 구성 모습과 가까워진다.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은 이미 현대국어의 관형화 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V. 결 론

이 연구는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형태 및 통사적 기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이전 시기 및 현대국어의 비교를 통해 명사구 내포문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결론으로 한다.

II장에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사화 구성은 명사구 내포문의 하위유형으로 하위문장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구성이다. 명사화 구성에 관여하는 명사화 어미는 ‘-(으)ㄴ’과 ‘-기’가 있다. 명사화 어미 ‘-(으)ㄴ’이 관여하는 구성을 ‘-(으)ㄴ’ 명사화 구성, 명사화 어미 ‘-기’가 관여하는 구성을 ‘-기’ 명사화 구성이라 한다. 관형화 구성 역시 명사구 내포문의 하위유형으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이다. 관형화 구성에 관여하는 관형화 어미는 ‘-ㄴ’과 ‘-ㄴ’이 있다.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는 구성을 ‘-ㄴ’ 관형화 구성, 관형화 어미 ‘-ㄴ’이 관여하는 구성을 ‘-ㄴ’ 관형화 구성이라 한다.

명사화 구성은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에 조사가 결합하여 상위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기’ 명사화 구성이 상위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관형화 구성은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의 관계에 따라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으로 나뉜다. 관계화 구성은 관형절 안에서 어떠한 성분이 빠져나와 내포문 명사가 되는 구성으로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 동일 지시를 형성한다. 관계화 구성은 다시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보문화 구성은 관계화 구성과 달리 어떠한 성분도 빠져나가지 않은 관형절에 별개의 명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성으로 이때의

관형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또 보문화 구성의 내포문 명사는 관형절의 어떠한 성분과도 동일 지시를 형성하지 않는다.

명사화 구성과 관형화 구성은 제약이 있다. 이들이 갖는 제약은 내포문 어미와 관련이 있다. 명사화 구성의 제약으로는 상위문장의 서술어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이 있고, 관형화 구성의 제약은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이 있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살펴본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여러 제약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기능과 여러 제약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대한매일신보>에서의 명사화 구성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격조사 및 보조사와 결합하여 상위문장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한다. ‘-(으)ㄴ’ 명사화 구성과 달리 ‘-기’ 명사화 구성에 결합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가지는 제약으로 상위문장의 서술어 제약,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위문장의 서술어 제약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제어미와의 결합에서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명사화 어미와 현실법, 완결법, 미정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은 자유로우나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명사화 어미와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은 자유롭다고 하였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 명사화 어미 ‘-(으)ㄴ’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이 결합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명사화 어미 ‘-기’도 마찬가지로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자유로우나 그 예는 드물게 나타났다.

명사화 구성의 변화는 주로 명사화 어미 ‘-(으)ㄴ’과 ‘-기’가 변화하면서 나타났다. 명사화 구성의 변화 양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5세기에는 명사화 어미 ‘-(으)ㄴ’이 독보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는 과생접미사의 기능이 더 컸다. 따라서 15세기에는 ‘-(으)ㄴ’ 명사화 구성이 독보적으로 많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기’가 명사화 어미로 기능을 하면서 점차 명사화 어미 ‘-기’의 쓰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으)ㄴ’ 명사화 구성이 점차 축소하고 ‘-기’ 명사화 구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7세기 초

부터 19세기 말의 근대국어에서는 ‘-기’ 명사화 구성이 더욱더 증가하였고, ‘-(으)口’ 명사화 구성과 ‘-기’ 명사화 구성이 섞여 쓰이기 시작했으며, 16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던 ‘-ㄴ/ㄷ 것’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기 국어에서도 ‘-(으)口’ 명사화 구성이 현저하게 축소하고 ‘-기’ 명사화 구성과 ‘-ㄴ/ㄷ 것’ 구조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기’ 명사화 구성은 점차 ‘-(으)口’ 명사화 구성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 양상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변화 양상이라면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는 ‘-기’ 명사화 구성이 ‘-(으)口’ 명사화 구성보다 많은 분포를 보여야 하지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명사화 구성의 분포 양상 표를 확인해보면 여전히 ‘-(으)口’ 명사화 구성이 ‘-기’ 명사화 구성보다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IV장에서는 II장에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살펴본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여러 제약을 바탕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의 유형과 제약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보았다.

<대한매일신보>의 나타난 관형화 구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형화 구성의 유형으로 관계화 구성과 보문화 구성을 살펴보았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의 관계화 구성은 주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목적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 부사어가 빠져나간 관계화 구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관형화 구성의 제약으로는 시제어미와의 결합 제약, 높임법 결합 제약,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이 있다. 관형화 구성의 제약은 관형화 어미와 관련이 있다. 관형화 어미와 시제어미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관형화 어미 ‘-(으)ㄴ’은 완결법의 시제어미 ‘-았/었-’과 미정법의 시제어미 ‘-겠-’과의 결합이 제약되고, 관형화 어미 ‘-는’은 회상법의 시제어미 ‘-더-’와의 결합이 제약되며, 관형화 어미 ‘-ㄷ’은 미정법, 완결법, 회상법의 시제어미와의 결합이 제약된다.

관형화 어미에 나타날 수 있는 높임법도 제약이 있다. 관형화 어미 ‘-ㄴ’에 나타날 수 있는 높임법으로는 어미 ‘-시-’에 의해 실현되는 주체높임과 어미 ‘-옵-’에 의해 실현되는 상대높임법이 있으며, 관형화 어미 ‘-ㄷ’에는 주체높임법만 나

타난다.

내포문 명사에 따른 제약은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와 의존명사일 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내포문 명사가 자립명사일 때 관계화 구성에서의 관형화 어미는 제약이 없으나 보문화 구성에서의 관형화 어미는 자립명사의 특성에 따라 제약을 가진다. 자립명사 ‘필요’는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자립명사 ‘이후’, ‘뒤’는 관형화 어미 ‘-ㄴ’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르’을 제약한다. 내포문 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에도 대다수의 의존명사는 관형화 어미를 제약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 ‘뿐’, ‘수’ 등 일부 의존명사는 관형화 어미를 제약한다. 의존명사 ‘리’는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한다. 의존명사 ‘수’는 ‘수’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제약하는 관형화 어미가 다른데, 의존명사 ‘수’가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면 관형화 어미 ‘-르’만을 허용하고, 관형화 어미 ‘-ㄴ’을 제약하지만 의존명사 ‘수’가 ‘경우’의 의미를 가지면 관형화 어미 ‘-(으)ㄴ’만을 허용하며, 관형화 어미 ‘-는’과 ‘-르’를 제약한다.

셋째, 관형화 구성의 변화 양상이다. 관형화 구성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체·대상법의 소멸이다. 주체·대상법은 어떤 문장이 관형화를 이룰 때, 수식을 받는 내포문 명사가 관형절에서 빠져나온 목적어나 부사어인 경우에 관형화 어미 앞에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지만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의 주어인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주체·대상법은 16세기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16세기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소멸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주체·대상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이때부터 ‘관형절+것’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7세기부터 관형화 구성은 현대국어의 모습과 가까워진다. 20세기 초기 문헌인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주체·대상법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관형화 구성은 이미 현재국어의 관형화 구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영근,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2010.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1985.
- 권재일, 『한국어 문법사』, 도서출판박이정, 1998.
-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2004.
- 권재일,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권재일,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012.
-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 서은아, 『국어 명사형 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3.
- 조용준 외 7, 전정예 엮음, 『선어말어미 ‘-오-’ 연구론』, 박이정, 2015.
- 이광호,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2004.
- 이기문, 『국어사개설』, 태학사, 1961.
-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86.
- 허 용, 『국어의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1987.
- 황화상, 『현대국어 형태론』, 지식과 교양, 2011.

2. 학술지 논문

- 고영근,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7,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2, 1-56쪽.
- 권재일, 「20세기 초기 국어의 명사화 구문 연구」, 『한글』229, 한글학회, 1995, 202-232쪽.
- 김봉모, 「매김말의 겹침구조 연구」, 『국어국문학』15,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50-76쪽.
- 김봉모, 「매김말의 변형 연구」, 『동아논총』16, 동아대학교, 1979, 61-86쪽.
- 김봉모, 「국어 매김말 연구」, 『동아논총』19, 동아대학교, 1982, 243-356쪽.
- 김인택, 「이름마디와 그 유형」, 『우리말연구』1, 우리말학회, 1991, 259-274쪽.
- 김인택, 「한국어 내포절의 범주 설정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59-87쪽.
- 김일환, 「명사형 어미 ‘-기’의 특이성」, 『한국어학』28, 한국어학회, 2005, 40-54쪽.
- 남기심, 「국어의 시제」, 『언어』2, 한국언어학회, 1976, 201-214쪽.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국립국어연구원, 1999, 163-234쪽.
- 박기덕, 「한국어의 관형절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983, 53-64쪽.
- 박진호,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1998, 121-205쪽.
- 서은아, 「현대국어 이름법 연구」, 『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5, 한말연구학회, 1996, 15-40쪽.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음, -기’의 풀이말 제약」, 『한말연구』4, 한말연구학회, 1998, 147-177쪽.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음, -기’의 의미 특성」, 『인문과학연구』2,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319-340쪽.
- 서은아, 「15·16세기 국어의 풀이씨 이름법 ‘-ㅁ, -기’ 연구」, 『겨레어문학』24, 겨레어문학회, 1999, 389-418쪽.
- 서은아, 「17·18세기 국어의 풀이씨 이름법 ‘-ㅁ, -기’ 연구」, 『겨레어문학』25, 겨레어문학회, 2000, 125-146쪽.
- 서은아, 「19·20세기 초 국어의 풀이씨 이름씨 씨끝 ‘-ㅁ, -기’ 연구」, 『한말연구』

- 8, 한말연구학회, 2001, 75-105쪽.
- 서은아, 「풀이씨 이름법 씨끝 ‘-ㅁ, -기’의 변화 양상」, 『한말연구』10, 한말연구학회, 2002, 83-114쪽.
- 양정호, 「명사형어미 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어문연구』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57-80쪽.
- 우형식,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15,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143-189쪽.
- 지춘수, 「15세기 국어의 내포문 연구」, 『인문과학연구』14,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2, 1-36쪽.
- 채 완,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8, 국어학회, 1979, 95-107쪽.
- 최대회, 「18세기 국어의 ‘-ㅁ(음), -기’ 이름마디 연구」, 『한민족어문학』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431-462쪽.
- 최대회, 「빠져나간 매김마디의 형태·통어론적 특성 연구 - 17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3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65-182쪽.
- 최대회, 「‘것’ 구조의 문법화」, 『겨레어문학』48, 겨레어문학회, 2012, 401-430쪽.
- 최대회, 「19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연구」, 『인문과학연구』39,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01-221쪽.
- 최대회, 「국어의 이름마디 변천 연구」, 『한말연구』34, 한말연구학회, 2014, 317-346쪽.
- 최대회, 「‘-오-’의 소멸과 명사구 내포문 구성 변천과의 상관성」, 『국제어문』62, 국제어문학회, 2014, 101-123쪽.
- 최대회, 「신소설에 나타난 이름마디 연구」, 『겨레어문학』52, 겨레어문학회, 2014, 305-329쪽.
- 최대회,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난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 ‘양’, ‘듯’, ‘테(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41, 한말연구학회, 2016, 149-172쪽.
- 최동주, 「중세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1, 국립국어연구원, 1996, 152-209쪽.
- 최형기, 「명사화 {-음}, {-기}의 의미기능」, 『국어국문학연구』14,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1, 97-116쪽.

- 허원욱, 「현대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1995, 243-259쪽.
- 허원욱, 「16세기 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3, 한말연구학회, 1997, 173-196쪽.
- 허원욱, 「17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17, 한말연구학회, 2005, 367-390쪽.
- 허원욱, 「18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35호, 한말연구학회, 2014, 297-316쪽.
- 허원욱, 「19세기 국어 매김마디의 통어론적 연구」, 『한말연구』45, 한말연구학회, 2017, 251-268쪽.
- 호정은,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독립신문 전산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83-101쪽.
- 홍양추, 「국어 매김말의 구조」, 『국어국문학』2,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69-92쪽.
- 홍중선, 「명사화 어미의 변천」, 『국어국문학』89, 국어국문학회, 1983, 31-52쪽.
- 홍중선,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2, 한국언어학회, 1983, 241-272쪽.
- 홍중선, 「명사의 기능: 그 기원적 성격과 변천」, 『어문논집』24-25, 안암어문학회, 1985, 519-533쪽.
- 홍중선,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2, 국립국어연구원, 1997, 143-190쪽.
- 홍중선, 「20세기 국어 문법의 통시적 변화」, 『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2009, 35-61쪽.

3. 학위 논문

- 김인영, 「국어 복합문 체계에 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형진,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배진영, 「국어 관형절 어미에 관한 연구-시간 관련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서은아, 「현대국어 풀이씨의 이름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윤이운, 「‘-ㄴ/르 것’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전성희, 「개화기 국어의 명사화 연구: 개화기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명아, 「개화기국어와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 특성 비교: <독립신문>과 현대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수현, 「『노걸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대회,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허원욱, 「15세기 국어의 이름마디와 매김마디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Abstract>

A study on NP Embedded Sentence in
<Daehanmaeilsinbo>

Kim Hyeon-sook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noun phrase embedded sentences in Daehanmaeilsinbo, an early 20th century document; the nature of <Daehanmaeilsinbo> as the early literature in the 20th century, allowed the significant comparison of the past and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The study also examined not only the synchronic features of noun phrase embedded sentences but also the aspect of diachronic change.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s and constraints of the nominalization composition in <Daehanmaeilsinbo> have been reviewed. The composition of ‘-(으)ㄴ’ and the composition of ‘-기’ of Daehanmaeilsinbo function as a sentence component of the superior sentence combined with a postposition. The combination of a nominative case postposition and an objective case proposition in the composition of ‘-기’ can be omitted. The chapter examined not only the functions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 but also the restrictions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 The restrictions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

are related to nominalization ending, which included the predicate constraint of superior sentence, the combination constraint of tense ending, and the combination constraint of honorifics.

Second, the functions and constraints of the adnominal composition in <Daehanmaeilsinbo> have been reviewed. The adnominal composition can be specified into relativisation composition and complementation composition. In case of a noun modified by adnominal clause is an independent noun or dependent noun, ‘-ㄴ’ adnominal composition and ‘-ㄹ’ adnominal composition can be identified. In this chapter, the types of adnominal composition and its restrictions were reviewed. The restrictions of adnominal composition is related to adnominal ending, which included the combination restriction of tense ending and the restriction according to head noun.

Third, the diachronic changes of noun phrase embedded sentences were reviewed. In case of nominalization composition, ‘-(으)ㄴ’ nominalization composition was most frequent in the 15th century, with few instances of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 However, since the 16th century,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 has gradually been activated, while ‘-(으)ㄴ’ nominalization composition began to reduce. In the 17th century,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 was more frequent than ‘-(으)ㄴ’ nominalization composition; at that time, the structure of ‘-ㄴ/ㄹ 것’ that did not exist until the 16th century showed up. Afterwards, the structure of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 and ‘-ㄴ/ㄹ 것’ became more activated. Nevertheless, <Daehanmaeilsinbo> in the early 20th century revealed that ‘-(으)ㄴ’ nominalization composition was more frequent than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 In case of adnominal composition, the most prominent change was the extinction of subject-object method. As a prefinal ending ‘-오/우-’ began to extinct in the 16th century, the subject-object method began to extinct as well. After the 17th century, the subject-object method nearly disappeared. It was confirmed that the adnominal composition after the 17th

century gradually seemed like the contemporary Korean abdominal composition.

Key words : NP embedded sentences in the early 20th century, nominalization composition, adnominal composition, function, restriction, type, the reduction of ‘-(으)ㄴ’ nominalization composition, the activation of ‘-기’ nominalization composition, extinction of subject-object method.